

리아호나

배움의 기쁨을
느껴 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10쪽

자살: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침묵의 외침, 18쪽

리하이에게서 배운
가족 역사의 교훈, 26쪽

욕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해독제, 30쪽





"나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네가 네 시함과 네 곤경과 네 고난에서 견져 내심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엘마서 38:5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특집 기사

16 어린 자녀들과 성찬식
애런 엘 웨스트
성찬을 취할 때 어린아이들은 성약을
맺는 준비를 할 수 있다.

18 자살에 관한 이해: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와 그 예방책
켄이치 시모카와
자살을 예방하도록 돕고 유가족을
돕는 방법을 배워 본다.

24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선지자의
말씀
컬레트 린달
아파트에 버려져 있던 리아호나 몇
권이 한 남자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26 가족 역사: 평화, 보호, 약속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우리가 가족 역사 기록을 모으고
조상들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30 사랑 VS. 욕정
조슈아 제이 퍼키
욕정, 즉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법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36 요르단 건너에서 봉사하며
알 발 존슨 및 레이철 콜먼
인도주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한 장년
선교사 부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봉사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교회 본부 기사

8 교회에서 봉사하며:
봉사하느라 바쁜 일요일
제프리 에이 호그

9 단상:
어머니의 마지막 성찬
첼렐 하워드 월콕스

10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배움의 기쁨
태드 알 콜리스터

40 후기 성도의 소리

4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어머를 위한 금식과 기도
세실 노령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 깃든 신성한 특징
고든 비 힝클리 회장



4



표지


앞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앞표지 안쪽 사진: jamiev-anbuskirk/GettyImages.
뒤표지 안쪽 사진: 합성 사진 이미지: 라이언 맥베이
및 크리스토퍼 엘웰/Thinkstock.



46

46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러셀 엠 벨슨 회장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기 위한 네 가지 제안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이웃집에 과일나무가 있나요?

54 중간 불의 기적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인내심은 완벽한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57 포스터:

재건된 여러분을 그려 보십시오

58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힘

제시카 터너가 린 크랜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교통사고를 겪은 후, 내 신앙을 강화해 줄 단순한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내게 치유와 앞으로 나갈 힘을 가져다주었다.

61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2 학습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

로즈메리 새커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해 주는 네 가지 단계를 따라 보자.

64 질의응답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표준을 강화하려면 나와 표준이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54



76



66 낚시하러 가기

줄리아 벤틀라
헤이든은 동생이 물고기들을 다 훑어 놓을까 봐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없어지자 더욱 큰 걱정이 생겼죠.

68 사도들의 답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69 우리들 이야기

70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
질 해킹
스토리와 가족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어요! 스토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72 어머니의 가르침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마자가르디 장로는 어머니로부터 정직에 대해 배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원리를 배웠나요?

74 몰몬경의 영웅: 몰몬경의 여성 영웅

76 몰몬경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

79 색칠하기: 음악은 저를 행복하게 해 줘요

2016년 10월호, 제 53권, 제10호

리아호나 1329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바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정원: 러셀 엘 벨스, 델리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테일 지 랜던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튼,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든, 켈리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라스 디 홀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번스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케년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매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타니 비에타,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스, 매트 디 폴리토, 로리 폴라, 캐리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드, 쥘 해킹,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리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케이 파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톰니, 민디 앤 셸러,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린 크랜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ونس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드,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콜린 킴블리, 에리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킷 엠 워미, 마크 더블유 루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태어, 케이 니콜 위켄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마르티네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코 우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리지, 줄리 벅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테데 리퍼티,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악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07호, 제53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 또는 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셜어, 말가리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체부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6 Vol. 40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어린 자녀들과 성찬식”, 16쪽: 부모는 이 기사를 읽은 뒤, 어린 자녀들에게 성찬의 중요성 및 장차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맺게 될 성약의 중요성을 가르칠 방법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성찬 기도문(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을 활용하면 침례를 받을 때 맺는 약속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더불어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면 그러한 약속을 새롭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성찬식 동안 구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구주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 간단한 그림책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학습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 62쪽: 자녀가 스스로 경전을 공부할 만한 나이라면, 자녀들과 함께 이 기사를 읽고 그들이 기사에 실린 방법을 시도하도록 권유해 본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개인 학습 일지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일지에 쓸 목표를 세우게 할 수도 있다. 나중에 가정의 밤을 할 때, 가족들은 각자 일지에 적은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는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iahona.magazine)에 가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6, 72

가족, 7, 26, 44, 66, 68, 70

가족 역사, 26, 42

간증, 74

개인적인 계시, 46

경전 공부, 43, 62

계명, 4

금식, 44

기도, 44, 66

기적, 44

물문경, 26, 43, 74, 76

봉사, 41, 58

부름, 8

사랑, 30, 41

선교 사업, 24, 36

선지자, 46, 80

선지자를 따름, 46

성신, 70

성전, 69

성찬, 9, 16

소망, 58

순종, 4, 30, 46

시련, 18, 44, 58

신성한 본질, 46

신앙, 46, 58, 74, 76

십일조, 72

안식일, 8, 42

예수 그리스도, 4, 61, 76

욕정, 30

용기, 74

음악, 79

인내, 54

인도주의적 봉사, 36

자녀, 16, 42

자비, 40

자살, 18

정직, 72

친구, 64

평화, 58, 68

표준, 6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¹

또한 몬슨 회장이 최근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계명을 지키기 때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집니다.] ...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²

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서 전한 가르침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계명은 행복과 화평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여정에 주어진 지침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따를 때 종종 험난하기도 한 이 필멸의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숙한 이 찬송가의 가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참조]”³

힘과 지식

“순종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선지자들은 항상 순종으로 힘과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힘과 지식의 근원을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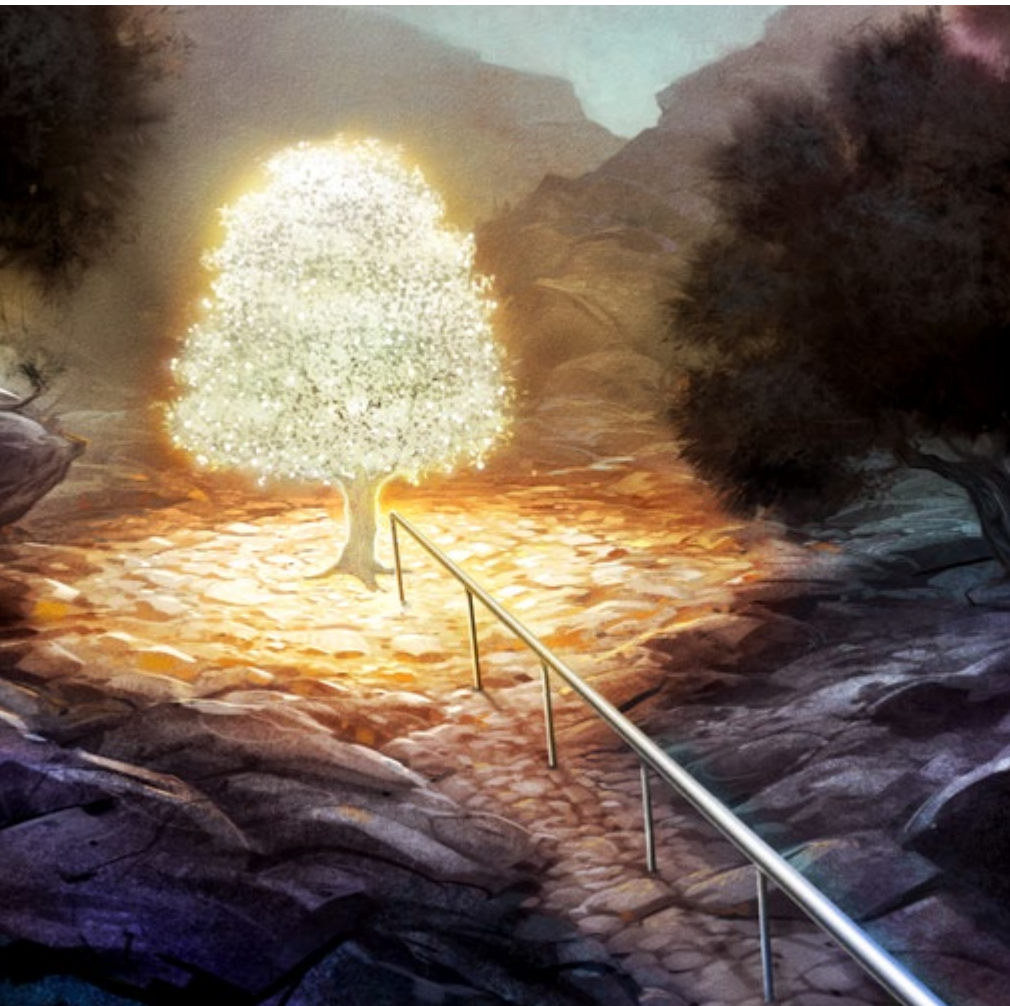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염원하는 해답들,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힘은 주님의 명에 기꺼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⁴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이 시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주류를 차지합니다. 잡지와 텔레비전을 보면,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도 닳고 싶어 하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어떤 나쁜 결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듯 모든 것을 따져 볼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어떤 신데렐라에게도 자정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다음 세상에서라도 말입니다.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 간절히 부탁하건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⁵

기쁨과 평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⁷

구주를 따르십시오

“질고를 아는 이 슬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만군의 주시요,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손짓해 부르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그분의 모범을 [본받읍]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거룩한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⁸ ■

주

1.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7년 10월호, 5쪽.
2.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3쪽.
3. “계명을 지키라”, 83쪽.
4.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0, 92쪽.
5.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9쪽.
6.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3쪽.
7.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8.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8쪽.

살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고수하는 행동 규범 때문에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구주를 따르고 계명을 지킬 때 느끼는 영보다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고 영혼에 더 큰 평화를 주는 것은 없음을 선언합니다.”⁶

올바르게 생활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위로해 주며 우리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문 손 회장은 힘, 지식, 기쁨, 평화 등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므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질문해 본다. 계속하여 그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을 일지에 적어 보도록 권한다. 또한, 변함없는 순종으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독려해도 좋다.

화재, 그리고 순종의 교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순종의 중요성에 관해 배우게 된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몬슨 회장은 여덟 살 때, 가족과 함께 산악 지대에 있는 별장에 간 일이 있었다. 몬슨 회장과 친구는 풀이 난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모닥불을 피우고 싶었다. 잡초를 없애 보려고 당겨도 보고 뽑아도 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풀은 그대로였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전했다. “그런데 그때, 여덟 살 아이인 제 수준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면 돼. 그래서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몬슨 회장은 성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장으로 돌아가 성냥 몇 개비를 가져와서 대니와 함께 풀밭에

작은 불을 놓았다. 둘은 불이 저절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불은 위험할 만큼 크게 번졌다. 몬슨 회장과 친구 대니는 뛰어가서 도움을 구했고, 곧 어른들이 달려와 불이 나무로 번지기 전에 불을 껐다.

몬슨 회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0쪽 참조)

여러분도 몬슨 회장처럼 쉽지 않은 방법으로 순종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했던 적이 있는가? 장차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

어린이

옳은 것을 선택해요

옳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안전해지기도 하지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동그라미 해 보세요.



교회 가기



다른 친구의 시험지 훑쳐보기



경전 읽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건강한 게임만 하기



형제자매와 다투기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reliefsociety.lds.org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가족에 관한 교리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는 우리 교회의 가족 신학은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근거로 삼는다고 가르쳤다.

“지구가 창조되어 가족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두 부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인봉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 타락으로 그들은 아들과 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족은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 속죄를 통해 가족은 영원히 성장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라 불리기도 하는 행복의 계획은 가족을 위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

…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 가족 없이는 계획도 없고, 필멸의 삶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⁴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이렇게 전했다. “[초등학교 노래인] ‘주님 가족 주셨네’의 가사를 통해 우리는 순수한 교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도 배웁니다. …

…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 즉 가족을 당신과 결속하는 계획입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1922~2015)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또한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이 안정된 사회, 안정된 경제, 안정된 도덕 문화의 기본 단위일 뿐 아니라 영원의 기본 단위이자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의 기본 단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조직과 통치 체계가 가족과 대가족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²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상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족 선언문에 설명된 주님 계획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³

보충 성구

교리와 성약 2:1~3; 132:19

생각해 볼 점

왜 가족은 현세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가?

주

1.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 13쪽.
2. 엘 톰 페리,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1쪽.
3. 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5쪽.
4. 줄리 비 벡,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3월호, 32, 34쪽.

봉사하느라 바쁜 일요일

제프리 에이 호그

일요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지만, 팔리 피 프랫 장로처럼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마주했던 고난을 겪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일요일 아침이다. 나는 앞으로 12시간에 걸쳐 모임, 집전, 확인, 그리고 성임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한 스테이크 센터에서 시작하여 그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집회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몹시 더운 날씨에 말이다.

모든 모임과 집전, 확인, 성임이 기대된다. 하지만 어제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갈지를 생각하니 내 자신이 조금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팔리 피 프랫 자서전]을 펼쳐서 지난번에 읽다가 그만둔 곳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프랫 장로는 힘겹던 미주리 시절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 형제들과 함께 투옥된 적이 있었다. 형제들은 인디펜던스로 호송된 후 여관에 감금되어 나무토막을 베개 삼아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아침, 잠에서 깬 프랫 장로는 아무도 모르게 여관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 동쪽으로 가 가까운 들판에 이르렀고, 1.6km 가량을 더 걸어간 후 숲으로 들어갔다. 눈이 내려 그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고 나무에 가려 그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곤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계속

동쪽으로 간다면 다른 주로 몸을 피해 가족들을 부를 수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가면 증범죄로 옥에 갇히고 기소될 처지였다. 탈출할 수 있다는 유혹 속에서, 프랫 장로는 자신이 떠난다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를” 투옥된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퇴양난의 길목에서, 그는 퍼뜩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것을 다시 찾으리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마가복음 8:35; 교리와 성약 98:13 참조)

프랫 장로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몇 달간의 힘겨운 감금 생활이 이어졌다.

가족도, 성도들의 우정도, 사도직을 수행할 역량도 없는 상태였다.¹

나는 읽던 책을 덮으며 초기 성도들이 빼앗긴 것들을 헤아려 보았다. 그들 중에는 내 조상도 있었으리라.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학대와 박해를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견뎌 주었기에, 오늘날 나는 신앙과 간증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지금, 내 가족은 안전하게, 쾌적한 집회소에서 맞이할 경배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과의 우정이 우리의 하루에 빛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확인과 성임을 행하고, 책임을 이행하고, 신앙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성찬을 취하면서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집에 모여 몰몬경을 읽고 함께 기도한 뒤, 안락한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눕힐 것이다.

내 일요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주

1. Parley P. Pratt,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1979), 194~197 참조.



어머니의 마지막 성찬

체럴 하워드 월콕스

“어머니, 성찬 취하실래요?” 나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께 여쭙 보았다.

어머니는 최근에 향년 92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계실 때, 의사들은 그저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 외에는 더 손쓸 것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를 당신의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 워드에서 두 분의 형제님이 병실로 찾아와서 어머니가 성찬을 취하고 싶어 하실지를 물었다. 처음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다 나는 다시 말했다. “아니, 어머니께 한번 여쭙 볼게요.” 나는 어머니 귀에 바짝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신권 형제님 두 분이 오셨어요. 성찬 취하실래요?”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대답하셨다. “응.”

축복이 끝나자, 나는 성찬기에서 빵 한 조각을 집어서 잘게 찢은 뒤 어머니의 입에 살짝 넣어 드렸다. 어머니는 한참 빵을 씹으셨고 나는 형제님들에게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고 나지막이 사과했다. 그들은 괜찮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두 번째 기도가 끝나자, 나는 물이 든 작은 플라스틱 성찬컵을 들고 어머니의 입술에 대 드렸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어머니가 용케 물을 삼키시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형제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고, 그분들은 다음 병실로 가셨다. 약 한 시간 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도록 허락됐던 그때가 얼마나 성스러운 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생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성찬을 취하신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응”이라는 대답이었다. 그것은 성찬을 취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이라는 희생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할 것을 약속하고, 그분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한마디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에 담으신 것은 성찬의 상징물이었다.

어머니께 그 마지막 성찬이 얼마나 감미로웠을까! 어머니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할 만큼 쇠약한 상태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없이 건강하게 살아 있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필멸의 여정에 속한 마지막 순간을 지나도록 이끌어 주고 영생을 향한 소망을 선사한, 그분의 구속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권능을 느끼시며 어머니는 얼마나 감사해 하셨을까.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며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에게 성약을 새롭게 하고 용서와 은혜를 느낄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다음에야, 빵과 물은 그것들이 내 어머니께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앨마서 32:42)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태드 알 콜리스터
본부 주일학교 회장

우리가 더욱더 배움에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고귀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

동네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어느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일거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지하여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그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 다. 그리고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마차에 태워 마을 외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없다는 생각이 밀려 왔습니 다. 그래도 이 백수건달한테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옥수수가 한 바구니 있는데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해 보시겠소?”

게으름뱅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옥수수 껍질은 벗겨 놓으셨나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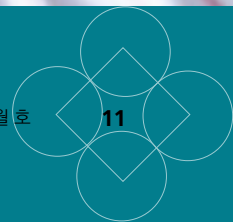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수업에 참여할 동등한 책임

우리는 이따금 경전을 거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경전이라는 양식을 취하기 전에 경전의 결껍질이 벗겨져 잇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마치 일련의 음악이나 동영상 오락물을 보고 듣는 것처럼 배우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공과 준비나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여 손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구주께서 한번은,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고 명하시며, 그 후에 “다시 [그들]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2~3 참조)

그분이 주시려던 가르침은,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준비하고 올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성신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듯이, 배우는 사람도 성신으로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0:13~21 참조)





물론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하였다.”(엘마서 1:26; 강조체 추가)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책임을 다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배우기

경전을 공부한다

모든 회원은 각자 복음 공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배움은 규칙적인 경전
 공부를 통하여 이뤄집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매일 경전을
 읽지 않으면 우리 간증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² 사도
 바울은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사도행전 17:11; 강조체 추가)

그날그날의 경전 공부는 우리 영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경전
 공부의 공백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전 공부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일일 경전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걸요.”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하루 동안 나무를 더 많이 자르는지
 시합을 했던 두 나무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이 틀 무렵 시합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사람은
 한 시간마다 자리를 떠나 숲속을 심어
 분 거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덩치 큰
 상대는 웃음을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앞서고 있음을 자신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지도, 도끼질을
 멈추지도, 한 번도 쉬지도 않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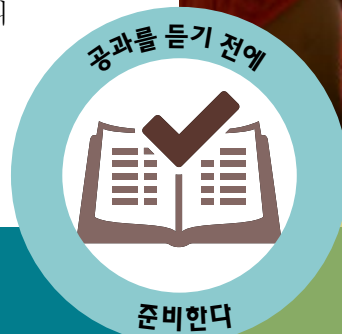
다. 날이 저물자, 그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았던 상대가 자신보다
 나무를 훨씬 많이 자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번 쉬고도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많이 잘랐소?”
 하고 물었습니다.

시합을 이긴 작은 체구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쉬고 있던 게
 아니라 도끼날을 갈고 있었다요.”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도구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더욱 현명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교회
 회원들만이 일요일 공과 시간에
 토론할 경전을 미리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면, 경전을 미리 읽고, 읽으면서 깨닫게 된 생각과 느낌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공과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반원 모두에게 나눠 주는 영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기
공과에 참여한다**

입을 열라고 하신 명은(교리와 성약 60:2~3 참조) 선교사들에게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적용됩니다. 공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을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영은 우리가 나누는 견해가 참됨을 증거해 주고 우리 마음을 더욱 깊은 통찰력으로 밝혀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여는 다른

이들의 생각에도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 주신 다음 가르침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강조체 추가) 때로는 공과에 참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익숙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수업을 듣는 모든 이들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느낌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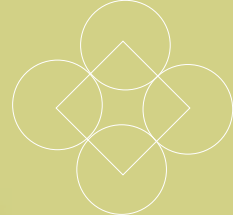
저는 교회에 빈 메모장을 가져가서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영적인 느낌을 구하고 얻게 된 것을 기록하는 일을 오랜 시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제가 기울인 노력 이상의 보상을 받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제 관점을 바꿔 놓았고,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교회 참석을 더욱 고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나 그 밖의 장소에서 느끼는 영적인 경험들을 기록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엄마가 십 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엄마, 정말 훌륭한 조언이에요.” 그리고는 공책을 꺼내 들고 엄마와 대화 중에 받았던 느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다가 정신을 추스르고 난 엄마는 아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받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느낌을 기록하면 그분은 더 많은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느낌은 처음에는 그저 밤톨만 한 생각의 단편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잘 가꾸고 되새기다 보면, 그것은 영적인 밤나무로 뻗어 나가기도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깨달음과 느낌을 기록해야 하는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실 때 충분한 가치가 없다 여기고 기록을 소홀히 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지 않고 논하려 한다면 영은 떠날 것이다. ...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이 많았다는 사실만 남되, 이미 가르침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³





배움의 기쁨

배움은 신성한 의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움은 벅찬 기쁨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름의 고대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의 새 왕관이 순금인지, 아니면 금세공인이 몰래 금 대신 은을 섞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골똥히 생각하다가 결국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해결법을 찾아낸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유레카! 유레카!” 하고 울부짖으며 도시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아냈어! 알아냈다고!”라는 뜻이었습니다.

과학 원리를 발견한 것도 크나큰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 비할 데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구주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르셨습니다.(요한복음 15:11) 이러한 이유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욥기 38:7) 씨앗에 자라나는 힘이 내재하듯이, 복음이 지닌 진리에도 기쁨을 불러오는 힘이



내재합니다.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는 말씀은 신성한 명이자, 성스러운 활동입니다. 항상 경전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수업을 준비해 오며, 공과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고, 성스러운 느낌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느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실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 더욱더 배움에 헌신하는 사람, 한결 신성한 제자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고귀한 기쁨을 맞볼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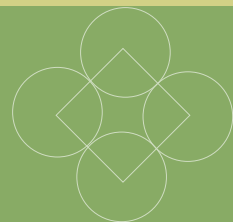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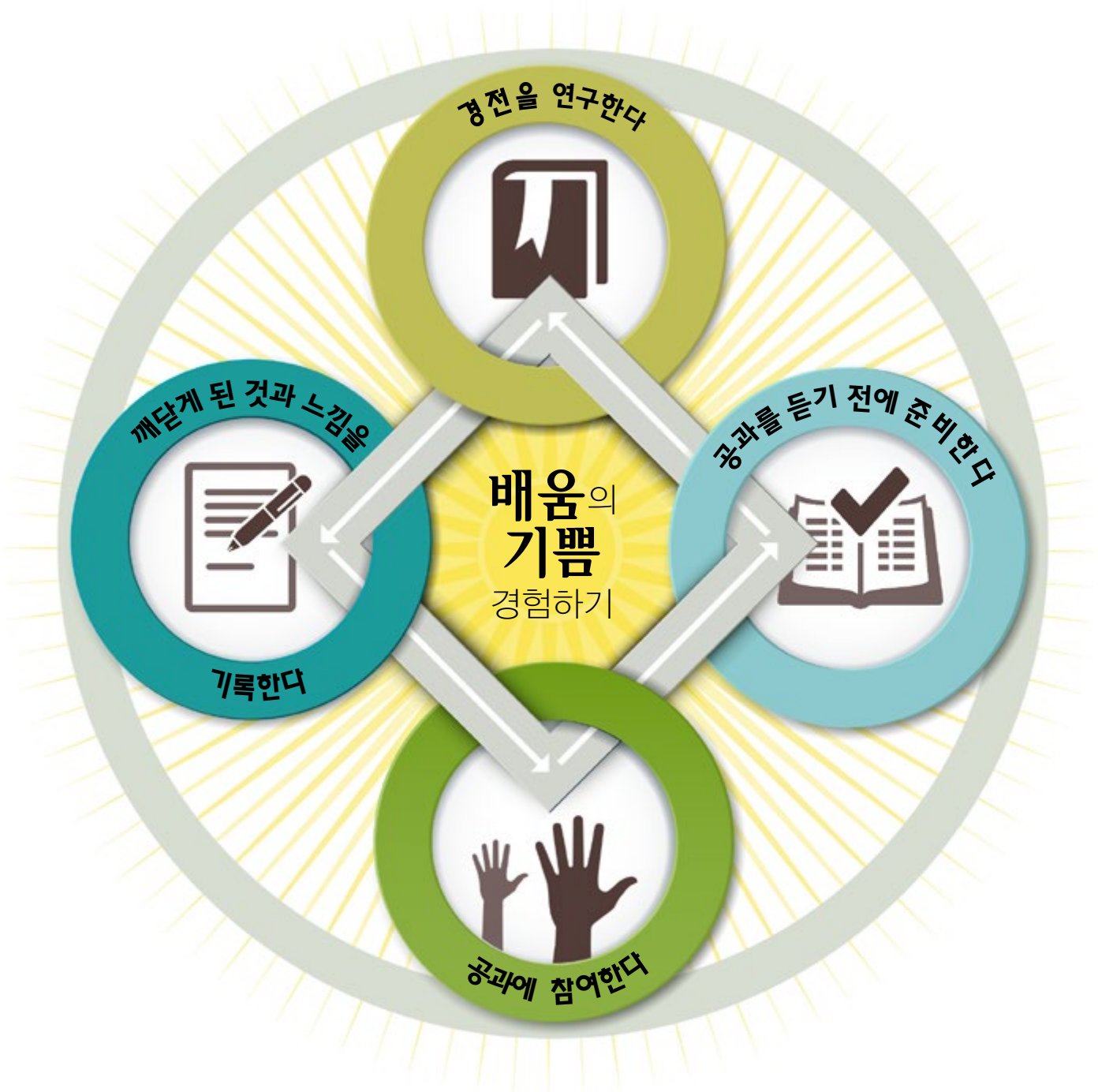
1. 2014년 11월 연차 대회에서 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비슷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2. Harold B. Lee, regional representatives' seminar, Dec. 12, 1970.
3.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2:199.

학문을 구하는



성스러운 활동





항상 경전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수업을 준비해 오며, 공과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고, 성스러운 느낌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느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도 자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성찬식

우리 아이들은 성찬이 우리 어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애런 엘 웨스트

침례받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성찬을 취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빵 한 조각을 먹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와 승강이를 벌이는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일까? 그저 의식 집행을 더 쉽게 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모두를
뜻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미대륙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시며, 이 의식은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띠다고
강조하셨다.¹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무리에게 주라.”²고 명하셨다. 그
무리에는 “어린이들”³도 포함된다.

오늘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 기도문을
낭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빵과 물을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시도록 간구하는데, 이는 성찬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한]”⁴ 것이다.

모든 사람. 성찬을 취하는 모든 사람에는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빵과 물을 취하면서 이 상징물을 자신들의
순결한 영혼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성찬
의식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돌아보게 된다. 아내와 나는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일을 제법 잘해냈었다. 우리 아이들은 성찬이 우리 어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성찬 기도문에 나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약속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함]”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것이 머지않아 자신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게 되면 누릴 특권을 알기 때문이다.⁵

그렇다면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한다고 가르쳐 왔다.⁶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새롭게 해야 할 성약이 없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이들이 과거에 맺은 성약을 돌아보게 할 수는 없지만, 장차

앞으로 맺을 성약을 고대하도록 이끌어 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어린 아들이나 딸과 함께하는 안식일 아침을 그려 본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만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너 성약을 맺게 될 거야. 그때 네가 맺을 성약은

지금 네가 성찬을 취하면서 맺는

약속하고 같단다.

오늘 아빠는 성찬을 취하면서 아빠가 침례받을 때 맺었던 성약을 새롭게 할 거야. 마치 그 약속을 다시 맺는 것처럼 말이지. 너도 아빠랑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테지만 너 성약을 새롭게 하지는 않을 거야. 너 아직 성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성약을 어떻게 맺는지 연습할 수가 있어. 성찬을 취할 때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네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것을 연습이라고 하기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물에 들어가게 될지를 보여 주고 침례 기도문을 들려줌으로써 자녀들이 침례 의식을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는 자녀들의 연습을 돕는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자녀들이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매주 성찬 모임은 어린 자녀들이 구주가 행하신 속죄의 상징물을 취하며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연습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침례받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성찬을 취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성찬을 취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⁷ 우리는 자녀들이 장차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시기가 올 때 더 크고 풍성하게 그 평안을 얻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제3니파이 18:5, 11 참조.
2. 제3니파이 18:4; 강조체 추가.
3. 제3니파이 17:21~25; 18:1~4 참조.
4. 교리와 성약 20:77, 79; 강조체 추가.
5. 교리와 성약 20:77.
6. 엘 톰 페리,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야호나, 2006년 5월호, 41쪽.
7. 요한복음 14:27 참조.





자살에

관한 이해: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와 예방책

켄이치 시모카와 박사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일본 사무실

케빈이 열여섯 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케빈이 간질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도 그즈음이었습니다. 그 약은 케빈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그는 편집증, 쇠약증을 동반한 조증에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은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지쳐 버린 케빈은 어느 순간, 주위에 자기 생각을 숨긴 채 조용히 삶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날을 케빈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감정적으로 진이 다 빠진 상태였죠. 아무라도 좋으니 누군가가 ‘괜찮니?’ 하고 물어봐 주길 바라며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관심을 원했던 만큼 [머릿속에선] ‘죽어야 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 그러면 안 된다고 늘 저 자신에게 애원했지만, 결국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¹

비참하게도 케빈의 고통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케빈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도 도움을 원하던 케빈의 감당기 힘든 고통과 절망, 침묵 속의 애절한 바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살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입니다. 자살 충동으로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물론 남은 유족 모두에게 말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보다 더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자살은 가족이 겪는 매우 파괴적인 경험입니다.”²

이러한 시련의 심각성을 고려하며 다음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1)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와 예방책 등, 자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2) 유족이나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신앙을 강화하려면 우리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살에 관한 이해

세계적으로 매년 팔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³ 즉, 40초당 한 명꼴로 이 세상의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자살은 민감한 문제인 데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라 축소 보고되므로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자살은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자살률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

인생의 시련들을 헤쳐 나가기가 벅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심적 고통이 견뎌 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이성이 흐려져서

엘마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생각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함과 동시에 고통과 무력감, 절망감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만이 답이라는 생각에 이르고 맙니다.

다음에 나오는 심각한 자살 징후 중에 어떤 내용이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⁴ 즉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경찰서와 같은 응급상황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 자살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찾는다
- 죽음, 임종, 자살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기록한다

다음의 징후들은 다급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으나, 단 하나라도 이러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삶에 대한 절망감과 목적 상실을 드러낸다
- 노여움과 분노를 나타내거나 보복하려 한다
- 무모한 행동을 한다
- 뒷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낀다
- 술이나 약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
- 친구와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대인관계가 줄어든다
-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잠정 기복이 심하다
-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늘 잠을 잔다
-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이 모두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위와 같은 행동적 징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친구와 가족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예방책

누군가가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가족과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마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18:8, 9)



가족과 친구들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귀 기울인다.
백라드 장로님께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포용보다 더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⁵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던드 장로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이 확장된 관점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타인의 실망, 두려움, 가슴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⁶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어떤 이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그것을 수락하는 일은 당사자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구인 광고를 찾아보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직접 일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어본다. 심적 고통을 겪는 누군가가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를 보여 걱정이 된다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런 질문은 당사자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일은 해결하기 버거울 것 같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혹은,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한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혹, 자살에 대한 생각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저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곁에 있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며 도움을 준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면서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털어놓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언급한다면, 자살 예방 긴급 전화나 지역 내 정신질환 담당 응급 부서에 연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살에 대한 반응

자살 징후를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살할 사람들은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살을 택한 충격적인 경험에 맞닥뜨리면 남은 유족과 친구들은 흔히 복잡다단하고도 극심한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한 반응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살 유가족이라는) 수치심과 주위의 낙인
- 충격과 부정
- 화, 안도감 또는 죄책감
- 죽음의 원인 은폐
- 사회적 고립과 가족 관계 단절
-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박적인 활동
- 자살 원인을 찾아내려는 소모적인 열망
- 버림받고 거부당한 느낌
- 고인이나 자신, 타인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빈번해짐
- 명절 기간이나 사망 기일에 스트레스 증가⁷

유족과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판단하지 않는다. 자살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하나,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재차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살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세부적인 것을 알고 계시며,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께서 실제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유전적, 화학적 구성,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 우리 조상의 관습, 우리의 건강, 기타 모든 것을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⁸

각자 나름대로 겪는 애도의 과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고인과의 관계가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으므로 애도의 방법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을 겪는 저마다의 방식을 인정하고 소중히 대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엄청나고도 격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 부족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할지니” 라고 이르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2:45) 슬픔은 고인이 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려 주는 징표입니다.

도움을 구한다. 슬픔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할 신성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치유되고 강화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락한다. 어떤 이들은 혼자서 슬픔을 달래는 가운데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십시오. 슬픔에 빠진 가족의 일원과 친척,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한다. 결국, 치유와 평안의 근원은 구주이십니다. “구주의 속죄는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그분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지상 생활의 짐을 짊어질 힘을 달라고 간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고뇌를 아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쳐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누가복음 10:34 참조)⁹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려 할 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우칩시다. 겸허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고통에 빠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읍시다.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실 구주 안에서 더 큰 신앙과 신뢰를 함께 거듭시다.(요한계시록 21:4 참조) ■

주

1. Kevin Hines, in Amanda Bower, “A Survivor Talks About His Leap,” *Time*, May 24, 2006, Time.com.
2. M. Russell Ballard, in Jason Swenson, “Elder Ballard Offers Comfort and Counsel to Those Affected by Suicide,” *Church News*, Dec. 19, 2014, news.lds.org.
3.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2014), 2.
4. See M. David Rudd and others, “Warning Signs for Suicid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6, no. 3 (2006), 255-62.
5. M. Russell Ballard, in “Sitting on the Bench: Thoughts on Suicide Prevention” (video), lds.org/media-library.
6. 데일 지 랜던, “하나님의 눈으로,”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4쪽.
7. See John R. Jordan, “Is Suicide Bereavement Different? A Reassessment of the Literatur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1, no. 1 (2001), 91-102.
8. 엠 러셀 벨라드, “자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18쪽
9. 델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4쪽.

함께 읽어 볼 말씀

-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42쪽.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0~77쪽.
- 세인 엠 보웬,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5~17쪽.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선지자의 말씀

누군가가 버린 잡지 한 권이 오스카르
카스트로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컬레트 린달

아 내가 어린 자녀 둘과 그를 버리고 떠난 날이 오스카르에게는 그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날 중 하나였다. 오스카르는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해야 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 살 집도 찾아야 했다. 오스카르는 삶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다. 다 놓아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오스카르가 가진 돈으로는 아르헨티나 산후안에서 임대할 수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전한 동네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살던 작은 집 한 곳이 비자, 오스카르는 그 집을 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새로 들어간 집에는 바닥에 잡지와 책 몇 권이 남겨져 있었다. 오스카르는 온종일 집안을 치우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잡지들 중 한 권을 바라보았다. 웬지 눈길이 가는 표지였다. *리아호나*라는 제목 아래 한 남자가 탑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을 전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며 그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떠올렸다.

오스카르는 잡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카르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수도 없이 오갔던

거친 말들을 떠올렸다.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었다. 계속해 잡지를 읽어나가던 오스카르는 가슴속에서 소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주가 가기 전에 오스카르는 잡지의 모든 기사를 다 읽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한 달 뒤, 선교사들이 오스카르가 사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다. 오스카르는 선교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후기 성도 선교사들인지 확인하고는, 교회 잡지를 더 구하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물었다. 장로들은 돈이 아니라 20분 정도만 시간을 낸다면 잡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튿날, 두 선교사가 오스카르의 집을 찾아왔다. 오스카르는 그들에게 이곳으로 이사한 일이며, 여기 있던 책과 잡지, 팸플릿을 통해 교회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 읽었던 기사가 당시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오스카르는 이미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 등 교회에 대해 더 알게 된 것들도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오스카르는 장로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모든 선교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믿어요.” 장로들은



오스카르에게 침례받기를 권유했고 오스카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겠다고 했다. 몇 주 뒤, 오스카르 카스트로는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았다.

주님께서 오스카르를 준비시키셨고, 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 잊을 수 없이 힘겹던 그날, 오스카르는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의 메시지에 담긴 영에 마음이 움직였다.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겨 둔 교회 잡지 몇 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도

못 했겠지만, 리아호나에 담긴 복음 메시지는 선교 사업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 메시지들은 오스카르가 찾던 진리로 그를 이끌어, 오스카르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

글쓴이는 남편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아르헨티나에 살았다.



오스카르 카스트로는 이사한 집에 남겨져 있던 연차 대회 특집호 리아호나를 발견한 뒤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7쪽.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족 역사: 평화, 보호, 약속



가족이 기록을 모으고, 마음을 치유하며, 가족 구성원을 인봉하는 데 참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영원토록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 저는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현대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으므로 저는 이 용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즉 친족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동의어로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은 이런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여러 세대를 앞선 조상에게서 힘을 얻는 자녀와 다가올 세대인 후손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부모로 구성된 가족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경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가족이란 개념이 수 세기가 지나도록 그다지 바뀌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자녀가 행복하고 영원한 가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이야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셨을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셨을까요? 이들 이야기에는 가족을 모으고, 치유하며 인봉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리하이에게서 배우는 교훈

저는 물론경의 첫 번째 가족인 리하이의 가족에게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는 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하이의 가족은 가족 기록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 기록이 주님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야기는 리하이와 새라이아가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딸들과 네 아들을 키우며 비교적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리하이에게 그의 가족을 광야로 데려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리하이이는 순종했으며, 그와 가족은 물질적 소유물을 뒤로하고 광야로의 모험 길에 오릅니다. 얼마 동안 여행한 후, 리하이이는 아들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그 꿈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시, 너와 네 형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라반이 유대인의 기록과 내 조상의 족보를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놋쇠판에 새겨져 있느니라.”(니파이전서 3:2~3; 강조체 추가)

이 명령 덕분에 우리 가족은 신앙과 순종에 관한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놋쇠판은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리하이의 가족 역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리하이의 아들들 대신 리하이에게 되돌아가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게 여기신 적은 없습니까? 리하이이는 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시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보다 리하이가 라반에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요청하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 임무는 쉽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은 시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의 여행 내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명하실 때는 실제로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 가족 기록을 찾고 얻으려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실까? 그분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길을 예비하시는가? 그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경험이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가? 성전과



주님은 리하이의 가족이 이 기록들을 갖기를 바라셨다. 그 기록들은 그의 후손에게 정체성을 제공했다.

가족 역사 봉사를 통해 그분께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오자, 리하이이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취하여 처음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리하이이는 놋쇠판에서 “모세의 다섯 책”,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그의 조상의 족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하이이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니파이전서 5:10, 11, 13, 14, 17)

그리고 나서 리하이이는 판에서 알게 된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리하이의 장막이 가족 역사 및 학습 센터와 다름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리하이의 가족에게 이런 기록들을 갖기를 바라신 까닭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록들은 리하이의 후손을

충실했던 과거의 족장들에게 연결하고, 그들 마음에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교리와 성약 2:2; 조셉 스미스—역사 1:39)을 심어 주어 일종의 정체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에, 영은 니파이에게 그것이 없으면 온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리라]”(니파이전서 4:13)고 경고했습니다.

물론정에 나오는 다른 백성의 경험은, 기록을 잃게 되면 진리를 잃게 되며 이는 미래 세대에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물레크인은 리하이의 가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리하이의 가족과는 달리, “그들은 ... 가져온 기록도 없었습니다.” 약 400년 후,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 또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였습니다.”(옵나이서 1:17) 그들은 성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모사이야는 물레크인에게 자기의 언어를 가르쳐 그가 지닌 기록에서 배움을 얻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물레크인이 살던 뒤숭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던 사회는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서로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및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기록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점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게 “돌아가자”고 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기록하는 일에서 멀어져 있거나, 또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있는 가족의 유대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역사에서 이런 단절과 분리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민, 가정불화, 복음으로의 개종, 아니면 단지 세월의 흐름이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FamilySearch.org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의 분산에는 여러 면에서 우리 가족과 기록의 분산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모으고, 필요한 경우 단절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고자 부지런히 애쓸 때, 우리의 마음도 자녀에게 돌이켜질 것입니다.¹ 아울러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화평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8:16 참조)

리하이와 성스러운 기록을 얻도록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의 기록을 얻도록 자녀를 되돌려 보냅시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길을 예비하셨듯이, 우리 자녀가 가족을 모으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기술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찾는 이름을 가져가 인봉 의식을 통해 우리의 집합이 영속적인 것이 되게 해 주는 성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기쁨

제가 아내 샤롤과 결혼했을 때, 저희는 아들 넷을 낳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네 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딸들을 데리고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 나름의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불평할 때가 있었고, 슬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인생이란 광야는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가족 모두 잘 지내시죠?”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몇 가지 고비들 사이에 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또한 참된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및 여성 가장으로서 광야에 대비해 많은 시간을 자녀를 강화하는 데 보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은 가족 역사 사업이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 방법”²과 구주에 대한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진]”³ 개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모으고, 치유하며, 인봉할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우리 가족의 족장으로서, 저는 딸들에게 기록을 찾고,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며, 이를 손자녀에게도 가르치기 위해 “돌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족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알고 이해하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약속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자”고 권유하여 가족의 기록을 찾을 때, 리하이와 새라이아처럼 함께 “심히 기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기록이 바람직[하고,] … 참으로 …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임]” 알게 되어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를 갖게 하신 것은 주 안에 있는 지혜였[다는 점]” (니파이전서 5:9, 17, 21~22)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록을 모으고, 마음을 치유하며, 친족들을 인봉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족이 참여할 때, 여러분과 후손, 곧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토록 축복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

2015년 2월 14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루츠텍 가족 역사 대회(RootsTech Family History Conference)에서 한 연설, “가족을 모으고, 치유하며 인봉함”에서 발췌.

주

1. 낱씨판에 담긴 기록이 어떻게 리하이의 후손에게 치유를 가져다주었는가에 관한 예를 보려면 앨머서 37:8~10 을 참조한다.
2.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94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인터넷 활용하기



두 사도가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동영상을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lds.org/go/1016000에 접속한다.



사랑

VS. 욕정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욕정.

이는 분명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그에 대해 배우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는다. 이 말에서는 부도덕한 느낌과 함께 매혹적이지만 옳지 않은, 다소 어두운 느낌이 풍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면”(디모데전서 6:10) 욕정은 그 비밀 원군임이 분명하다. 욕정은 비도덕적이고 저급하다. 욕정은 사람과 물질은 물론 생각까지도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유하거나 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질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욕정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욕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욕정을 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각과 의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강화하는 성령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더욱 행복하고 화평하며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욕정의 정의

욕정이라 하면 보통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강렬한 육체적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람은 물론 돈, 재산, 물건 등 모든 것이 욕정과 갈망의 대상이

욕정이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욕정을 내려놓고 성신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욕정의 정의

사랑은 고귀하고 욕정은 천박하다. 사랑에는 진리가 숨 쉬고 욕정에는 거짓이 숨 쉰다. 사랑은 드높이며 강화하고 욕정은 파괴하며 약화한다. 사랑은 조화를 이루고 욕정은 불화를 일으킨다. 사랑은 화평을 부르고 욕정은 갈등을 부른다. 사랑은 영감을 자극하고 욕정은 영감을 무디게 한다. 사랑은 치유하고 욕정은 병들게 한다. 사랑은 활력을 주고 욕정은 활력을 앗아간다. 사랑은 주위를 밝히고 욕정은 주위를 어둡게 한다. 사랑은 채워 주며 지지해 주고 욕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사랑은 약속으로 결속되고 욕정은 교만으로 결속된다.

될 수 있다.(경전 안내서, “탐욕” 참조)

사람은 욕정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좇는다. 욕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개인의 이익, 욕망, 걱정, 욕구 등 세상의 부와 이기적인 행동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감정과 바람을 아우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바라거나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길 바라는 것이 곧 욕정이며, 욕정은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¹

성적인 욕정의 위험성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갈망의 형태를 띤 욕정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특히 위험한 것은 성적인 맥락에서의 욕정이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고대 사도들은 이러한 맥락의 욕정을 광범위하게 경고했다. 한 가지 예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한1서 2:16; 또한 17절; 로마서 13:14; 베드로전서 2:11 참조)

그 경고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욕욕이 그토록 치명적인 대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욕은 우리 영혼에 영을 파괴하는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멸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더럽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욕은 남녀 간의 사랑과 부부가 영원히 지속하도록 계획된 가족 안으로 자녀를 데려오려는 소망을 더럽히는 것입니다.”³

욕정이 싹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가 되는 여러 행위의 뿌리가 되어 왔다. 처음에는 길보기에 악의 없는 시선에 지나지 않는 것도 온갖 비참한 결과를 낳는 추악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욕정이 성신을 몰아내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부도덕, 계약 등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다윗 왕의 비극적인 선택은 이런 감정이 얼마나 강렬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쓰라린 예이다.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밧세바에게 욕정을 품었다. 욕정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는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동침했다. 그런 뒤 자신의 죄를 숨기려던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에게 죽을 것이 뻔한 전장에 나가도록 명하는 그릇된 수를 쓴다.(사무엘하 11장 참조) 그 결과 다윗은 승영을 잃었다.(교리와 성약 132:38~39 참조)

다윗의 예는 다분히 극단적이지만, 욕정이 강렬한 유혹이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준다. 욕정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욕정은 매우 교활하고, 쉽게 일어나며,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고 금지된 일을 하도록 굴복하게끔 유혹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에 더 위험하다.



욕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의 부와 이기적인 행동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감정과 바람을 아우르는 말이다.

욕정은 외설물을 보거나 외설적인 노래를 듣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느껴질 수 있다. 동시에, 욕정에서 비롯된 감정이 사람을 자극하여 외설물을 찾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은 더없이 강력하고 위험하다.⁴

성적인 특성을 띤 욕정은 모든 관계를 저하하고 약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약화한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전에 말한 것같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나, 만일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간음을 범하면, 그들은 영을 지니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하며 두려워하리라.”(교리와 성약 63:16)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정신을 양양하고, 깨우치며, 힘을 부여하는 성신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성적인 부도덕은 장애가 됩니다. 성적 부도덕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일으킵니다. 결국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⁵

욕정이 아닌 것

무엇이 욕정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무엇이 욕정이 아닌가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생각과 느낌, 욕구를 욕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욕정은 욕구의 일종이지만, 욕구에는 의로운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바랄 수 있다.

다음 욕구들을 생각해 보자.

- **금전에 대한 욕구** 금전을 바라는 것 자체는 악하지 않다. 바울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디모데전서 6:10, 강조체 추가)라고 했다. 야곱의 가르침에는 이 점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리라.”(야곱서 2:18~19)
- **배우자에게 느끼는 적절한 성적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정은 결혼 관계를 강화하고 단단하게 하며 단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통제할 힘이 있다.

부적절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나만 만족하려 하거나 내 욕구와 갈망만 채우려 한다면 욕정에서 기인한 충동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써 결혼 관계에 금이 갈 위험이 생긴다. 결혼 관계 안에서 적절한 육체적 친밀감을 찾고 그 감정을 유지하는 열쇠는 순수하고 애정 어린 의도이다.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에 선을 함양하려는 의로운 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사람은 욕정이 생기면 적절한 경계선을 넘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경계선을 넘어가면,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대상화하며, 사물과 부, 권력까지도 감정을 왜곡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흉물로 변모시킬 우려가 있다.

왜 우리는 자주 욕정에 굴복하는가

이렇게 해롭고 위험한 욕정이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끌며 세상에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자주 욕정에 굴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이기심이나 자제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욕정의 기저에는 공허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헛된 노력을 들이다가 욕정에 굴복하고 만다. 욕정은 거짓 감정이며, 참된 사랑과 진정한 가치, 그리고 오래도록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막아서는 저렴한 대체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 또한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리[하다.]”(잠언 23:7) 어느 곳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초점을 두든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위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욕정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 유혹을 더 적절한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게으름 또한 욕정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삶이 무료할 때 악한 영향력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훌륭한 대업에 임하고(교리와 성약 58:27 참조)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욕정에 관계된 생각이나 다른 부정적인 영향력의 영향력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고수하고자 선택하는 욕망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욕망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을 이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⁶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허용한 감정뿐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 생겨나는 생각 또한 경계해야 한다. 엘마가 가르쳤듯이, 우리의 생각이 불결하다면,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엘마서 12:14)

해답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욕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통제할 힘이 있다. 우리는 욕정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느낌을 좇을 필요가 없다. 유혹이 찾아올 때는 유혹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욕정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적절한 관계를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또한,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등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성신을 불러들일 수 있다. 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영광에만 전념하겠다는 소망이 있든, 순결하고 진실하며 순수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성신을 동반할 때에만 허락된다.

욕정을 버리려면 그런 감정을 사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간구해야 한다.(모로나이서 7:48 참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⁷ 주님 덕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따라 생활할 때(마태복음 22:36~39 참조),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때, 순결하고 진실한 의도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워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모을 때, 욕정의 유혹과 영향력은 약해지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저급한 욕망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기쁨으로 바꿔 주는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기쁨과 자비”,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86쪽; Thomas S. Monson, “Finishers Wanted,” *Ensign*, July 1972, 69 참조.
2. 몇 가지 예로서, 교리와 성약 88:121; 스펜서 더블유 킴볼, “김볼 회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심”,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55~163쪽; 닐 에이 맥스웰, “일곱 번째 계명: 방패”,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0~93쪽; Russell M. Nelson, “Where Is Wisdom?,” *Ensign*, Nov. 1992, 6-8.
경전에서 욕정에 대한 경고를 더 살펴보려면 경전 안내서에서 다음 주제를 찾아본다: 간음[Adultery]; 육신에 속한[Carnal]; 순결[Chastity]; 탐내다[Covet]; 음행[Fornication]; 동성애[Homosexuality]; 탐욕[Lust]; 육욕적인[Sensual, Sensuality]; 성적 부도덕[Sexual Immorality].
3. 제프리 알 홀런드,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4~46쪽.
4. 이 주제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50쪽 참조.
5. 리처드 지 스크트, “의로운 선택을 함”, *리아호나*, 1995년 1월호, 38쪽.
6. 델린 에이치 옥스, “의로운 욕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2쪽.
7. 예를 들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41쪽 참조.

정결한 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제 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하는 정결한 생활을 되찾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언

1.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물질, 상황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2. 도움을 구하십시오.
3. 나쁜 영향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자제력을 키우고 행사하십시오.
4. 음란한 생각을 소망으로 가득 찬 생각과 행복한 추억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5.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하십시오.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4~46쪽에서 발췌.



요르단 건너에서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봉사하며

알 발 존슨 및 레이철 콜먼
교회 잡지 및 출판부

상 황은 심각했다. 2013년 초, 중동 국가 요르단의 자아타리 난민 수용소에 다섯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과밀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십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전염성이 높고 위험스러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기에 처했다. 요르단 정부는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대규모 방역 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2주 안에 생후 6개월부터 30세 사이에 해당하는 구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에게 예방 접종을 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혈청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서 제공하고, 병원엔 요르단 보건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주사기, 날카로운 도구를 담은 용기, 혈청 냉장고와 같이 저온 유통이 필요한 물품이 없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¹

요르단에서 후기 성도 자선회 국가 책임자로 봉사하는 장년 복지 선교사인 론과 샌디 해먼드 부부가 여기에 개입했다. 론과 샌디는 이미 유니세프 및 요르단 보건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 조직들의 공동 협력체에 신속히 가담하여 후기 성도 자선회가 도울 방안을 결정하고자 했다.

론은 말한다. “저희는 저온 유통 물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문의했죠. 답변을

들은 후, ‘후기 성도 자선회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빨리요?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로부터 20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후기 성도 자선회는 필요한 저온 유통 물품 구매를 승인했다. 론은 말한다. “저희가 보건부와 유니세프에 승인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비정부 기구(NGO)가 그토록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방역 활동이 일정대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 일은 수십만의 요르단인과 시리아 난민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다.

더 나아가 유니세프와 요르단 보건부 및 후기 성도 자선회 사이의 이런 생산적인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후기 성도 자선회는 구만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시키는 일을 도왔다.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론과 샌디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중동에 도착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해먼드 부부의 신앙의 증거이자 교회 장년 선교사 프로그램에 작용하는 영감의 증거이다.

장년 선교사 부부가 필요하다

2012년, 해먼드 부부는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론은 치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중이었다. 그런데 평온했던 이들의 일상생활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즉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뚜렷한 영적 느낌으로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기가 아니어서 두 사람은 놀랐다. 결혼한 자녀들은 직장 이동 및 이주가 한창인 시기였고, 론은 아직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영은 두 사람이 필요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교회 본부의 신권 지도자들은 요르단 암만에서 후기 성도 자선회 국가 책임자로 봉사할 마땅한 부부를 찾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샌디는 말한다. “주님이 저희보다 앞서가셔서 저희에게 맡기려는 특별한 임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계셨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분께서 봉사하는 모든 선교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도 전에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은 힘과

요르단 암만



위안을 줍니다.”

론은 말한다. “돌이켜 생각하니, 저희가 봉사하고 싶은 특정한 곳이 있거나 어디서 봉사할지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해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우리가 달리는 언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 주시죠.”

그런 경험에는 요르단 왕가와 더불어 왕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함께했던 일도 포함된다. 해먼드 부부는 현지 병의원들과 협력하여 요르단 의료진에게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는 신생아 소생법에 관한 훈련을 제공했다. 이는 신생아의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해먼드 부부와 그 밖의 장년 부부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후기 성도 자선회는 여러 안과적 문제 및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돕는 조직에 훈련과 장비를 제공했다. 해먼드 부부와 그 외 복지

여러분의 생애에서 최고의 6개월, 12개월, 18개월, 또는 23개월을 보내는 방법

장년 부부는 상황에 따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또는 23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 및 호주 출신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미화 1,400달러가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에, 선교 기간 중 가장 큰 비용인 주거비는 감당할 만하게 되었다. 그밖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 나온 부부는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부담하면 된다.

선교사 봉사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선교 사업을 통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장년 부부들의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lds.org/callings/missionary/senior를 방문한다.



선교사들이 도움을 준 곳 중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특수 의상 및 공예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센터가 있었으며, 수강생들은 이런 기술로 자신과 가족을 더 잘 부양할 기회를 얻었다.

그 밖의 활동에는 다른 비정부 기구 및 요르단 정부와 비상 대응에 함께 노력한 일과, 해마다 두 가지 장학금 중 하나를 수여할 학생을 심사하여 요르단 학생들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운 일 등이 있다. 해먼드 부부가 했던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라틴 가톨릭 교회와 협력하여 모임 곳이 없었던 이라크 기독교도에게 학교 교실을 지어 준 일이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분과 함께

요르단에 머무는 동안, 해먼드 부부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다음 약속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론은 말한다.



해먼드 부부와 그 밖의 인도주의적 선교사들은 요르단 왕가와 협력하여 현지 신생아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과 함께 포도원에 계십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는 모든 부부는 이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원의 주인 곁에 서게 됩니다. 저희는 요르단에서 그저 기적을 믿으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은 저희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이들이 자신들을 “둘러” 있다고 느낀 천사에는 다양한 하늘의 존재뿐 아니라 지상의 다양한 계층, 특히 그토록 멀리 집을 떠나 봉사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해 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자녀들의 가족도 주님의 보호와 지지의 권능으로 축복을 받았다. 자녀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함께 상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들의 직장 및 이주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고, 잠재적인 출산 합병증에 대한 염려가 해소되었다.

자녀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나 놀라웠기에, 해먼드 형제와 자매가 선교 사업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자녀들은 저마다 열렬한 지원을 표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봉사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주님이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먼드 가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일은 희생이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구 반대편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가족은 통신 기술을 통해 필요할 때 종종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할 수 있었다. 샌디는 말한다. “장년 부부 선교사는 그들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합니다. 저희는 집에 있는 자녀들의 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페이스타임(영상 통화)과 이메일 덕분에 저희가 봉사하는 동안 새로 태어난 네 손주는 저희를 알아보았고, 저희가 귀환할 때 환영해 주었습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다

해먼드 부부가 봉사를 통해 받았다고 느끼는 여러 축복들 중 하나는 요르단 국민의 너그러움과 친절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해먼드 부부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봉사하게 될 요르단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했다.

론은 말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슬람교도 친구들이 상냥하고 너그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저희를 보호하려고 분명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원쪽 사진: 후기 성도 자선회 제공; 오른쪽 사진: 해먼드 부부 제공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장년 부부 선교사들의 한 가지 염려는 자녀와 손자녀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먼드 부부가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봉사 중인 장년 부부 선교사들의 가족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는 것과, 비록 가족들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더라도 통신 기술을 통해 여전히 가족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놀랍습니다. 요르단 사람들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들은 다윗의 시대 전부터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요르단 건너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역사적으로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저희가 연민 어린 봉사를 제공하는 특권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보내는 서신 하단에 “요르단 건너” 라고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요르단은 사랑의 장소였으며, 이 일로 주님은 그 백성을 축복해 오셨습니다.”

해먼드 부부는 요르단 국민들과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샌디는 말한다. “저희는 라마단 기간 중 매일의 금식을 마감하는 이프타 식사에 몇 번 초대받았어요. 이슬람교도 친구들이 저희를 약혼식과 결혼식 및 그 외 가족 행사에 와 달라고 초대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요르단에서, 또는 전도나 침례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 기타 모든 곳에서 이슬람교도에게 전도하거나 침례를 베풀지 않기에, 해먼드 부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먼드 부부는 요르단 왕가, 현지의 인도주의적 협력 단체, 함께 봉사하는 다른 장년 부부 선교사들, 그리고 종교 및 정부 지도자들과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누군가

교회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물으면, 해먼드 부부는 문의자에게 LDS.org를 방문하도록 권한다.

봉사하라는 부름

그동안의 놀라운 경험을 생각해 볼 때, 론과 샌디는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부부, 또는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만한 부부 중 자신들이 약간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답은 “그렇다” 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이기도 하다. 해먼드 부부는 말한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특별한 기술과 인생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서 장년 부부 선교사를 필요로 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년 선교사들이 그렇게 봉사합니다. 선교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부부라면 누구든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봉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장년] 부부 선교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취합니다. ...

... [장년] 부부 선교사가 봉사할 방법은 사실상 무궁무진합니다. 선교 본부에서 도움을 주는 일과 지도자를 훈련하는 모임에서부터 가족 역사, 성전 사업, 인도주의적 봉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라도 거의 모두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

... 여러분은 생애에서 [이미 풍성하게 받으셨으니] 이제 나아가 우리 주님이요 구주께 봉사하여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필요할지 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할 일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² ■

주 1. “Mass Vaccination Campaigns in Syria, Jordan, Lebanon, Iraq and Turkey Amid Measles Outbreaks”, Apr. 30, 2013, unicef.org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리야흐나*, 2001년 7월호, 30, 31쪽.

자비를 구하며

에 스토니아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돈을 구걸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십 년 전에 그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본 사람이었다. 그는 그때처럼 플라스틱병이 든 큰 자루를 메고 있었는데, 재활용품을 모아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늘 펀돈을 구걸했는데, 얼마라도 받고 나면 조금 더 줄 순 없는지를 묻곤 했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십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흰머리가 좀 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돈을 구걸하며 그날그날을 사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니 그 십 년 동안 나는 성전에서 결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건강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왔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이번이 그를 보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뭐라도 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내 수중에 있는 유일한 돈인 지폐 한 장이 그에게 주기에는 좀 큰돈이었다는 것이었다. 결정을 내리기가 난감했다. 한 펀돈 주지 않거나 주고 싶은 것보다 많이 주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돈은 나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지만, 그에게는 꽤 도움이 될 듯하여 그에게 주기로 했다.

그 뒤 이틀이 채 되지 않아 나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었다. 단, 이번에는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쪽이 바로 나였다. 나는 중요한 장학금을 신청해야 했는데 날짜를

혼동하고 있었다. 신청서를 두 주나 빨리 제출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 하루 늦게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장학금의 총액은 정확히 내가 그 걸인에게 준 액수의 백 배였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고, 이메일로 대학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아는 주겠지만, 기한이 늦었음은 알아 두라고 했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고 나는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우리 부부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자라는 소중한 교훈을 배운 것이었다. (모사이야서 4:19 참조) ■

매튜 크렌델, 에스토니아 하루 주

에 스토니아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돈을 구걸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십 년 전에 그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본 사람이었다.



‘던’이라는 이름의 천사들

TV를 보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92세 되신 플로이드 외삼촌과 아내 밀리 숙모님이 독감을 앓고 계시는데 그 집에 먹을 게 없다는 말씀이었다. 외삼촌 부부 두 분 다 가게에 무얼 사러 가실 형편이 아니었다. 두 분은 근처에 가족도 없으셔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딱히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나는 어머니 쪽 친척 중에서는 유일한 교회 회원인데, 그 전에도 그런 상황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문제는 나는 미국 유타 주에 살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헤멧에 계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잠시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고는 헤멧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헤멧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는 던 자매님이란 분을 얘기하며, 그분이 그곳의 상호부조회 회장이라고 했다.

던 자매님이 전화를 받자, 나는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던 자매님. 저를 모르실 텐데, 저는 낸시 리틀이라고해요. 유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교회 회원이지만, 헤멧에 사시는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는 회원은 아니세요. 그분들이 지금 편찮으신데 집에 음식이



던 자매님은 남편분과 함께 직접 우리 외삼촌 내외분께 음식을 가져다주겠다고 고집하셨다.

하나도 없으시대요.” 나는 외삼촌이 사시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던 자매님이 살고 계신 곳과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나는 외삼촌 택 근처에 음식을 배달해 줄 식당이 있는지만 알고 싶다고 했다.

던 자매님은 식당은 알려 주지 않으시고 남편분과 함께 우리 외삼촌 택에 음식을 가져다주겠다고 하셨다. 마침 손수 만든 수프와 빵이 있고 친정어머니가 만드신 쿠키도 있다시며 말이다. 나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자매님은 꾀꿉하셨다.

몇 시간 후, 던 자매님은 전화로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알려 주셨다.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플로이드 외삼촌이 던 자매님이 방문하신 일을 이야기하신 모양이었다. 외삼촌은 동생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천사 같은 던 씨 부부가 다녀가셨단다. 과일과 채소, 집에서 만든 수프와 빵, 그리고 쿠키까지 음식을 한 아름 가져오셨더구나. 내가 이제까지 먹어 본 쿠키 중 제일 맛있는 쿠키였지.” 던 자매님 부부는 우리 외삼촌을 방문하셨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 주셨다. 그리고 던 형제님은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하시는 병약한 밀리 숙모님을 침대에서 주방 의자까지 옮겨 주셨고, 거기서 던 자매님이 숙모께 음식을 먹여 주셨다.

플로이드 외삼촌은 어머니께 그 일을 이야기하시며 흐느껴 우셨다고 한다.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처음 만나 보셨단다. 그러면서 내가 유타에 살면서 “그런 물문들”에 둘러싸여 살다니 행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던 부부가 다녀간 지 나흘 후, 플로이드 외삼촌은 불편함을 확인하러 나가셨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다. 외삼촌은 머리를 부딪히셨고 나흘 후 돌아가셨다. 가정 요양 간호사를 제외하면, 던 형제님과 자매님은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었다.

나는 던 자매님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사는지라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상호부조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외삼촌과 외숙모를 도와주신 자매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에 감사드린다. ■ 낸시 리틀, 미국 유타 주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할 시간

어린 두 딸을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참여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핑계를 대곤 했다. 그중 하나가 가족 역사 사업이었다.

그 전에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색인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었지만, 당시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시간도 지식도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그러다 몇 달 전 어느 이른 아침, 성전에 앉아 있던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성전 의식 카드에 적힌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보며 그분들이 자신을 위해 행해지는 성전 의식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을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싶다." 영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룰 시간과 지식을 찾으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 분명했다.

그 일요일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 FamilySearch.org에 로그인했다. 조상들의 이름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그분들과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최근에 할머니께서 추가하신 조상들의 사진과 문서들을 보자 나는 그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돌아가신 내 가족들이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살짜리 내 딸아이가 함께하게 된 것도 기뻐다. 아이는 증조할아버지와 5대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분들의 이름을 맞힐 수 있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 말씀이 실감 났다. "안식일은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로서, 조상과

후손에게 인봉된 가족으로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0쪽)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매주 안식일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감사하게도 나는 돌아가신 가족들 몇 분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는 중에 친지들에 관해 알게 되고, 교회 회원이 아니신 조부모님과도 더 가까워진 것은 특별한 축복이었다. 이 성전 사업은 내가 영원한 가족 안에서 강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성약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해 주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역량을 키워 주셔서 특별히 그분의 날에 그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안식일은 나에게 참으로 즐거운 날이다. ■
레이첼 루이스, 미국 유타 주



두 살짜리 내 딸아이가 함께하게 된 것도 기뻐다. 아이는 증조할아버지와 5대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분들의 이름을 맞힐 수 있게 되었다.



마침 나는 모로나이 장군 모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은 학년 내내 셔츠 주머니 안에 그 모형을 넣고 다니며 모로나이 장군이 가르쳐 준, 중학생들을 관리하는 법을 떠올리곤 했다.

모로나이 장군이 가르쳐 준 비결

나는 13~14세를 가르치느라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이 최근에 수업을 참관하시고 평가하신 내용을 전하시는 회의에서 실망감을 안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신임 교사인 데다 교안도 대부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계속 과제를 하고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든지 혼이 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경정한 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울적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회의를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경전을 공부할 때 이날 회의했던

내용을 그날의 질문으로 삼아 보기도 했다. 놀랍게도 몰몬경을 읽는 동안 답이 나왔다.

그날 아침,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경전에서 배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엘마서 44장에서 모로나이 장군에 관해 읽는데, 성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부분은 모로나이 장군과 니파이인들이 시돈 강가에서 레이맨들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도록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교실 안에서 모로나이 장군처럼 아이들을 통솔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경전을 읽어 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모로나이가 제레헴나와 레이맨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제시된 선택은 “너희의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리하면 …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서 다시 우리를 치러 오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는 것과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 내가 나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로 너희를 급습하게 하리라.”(엘마서 44:6, 7)는 것이었다. 나는 모로나이가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주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모로나이의 좌우명을 내 좌우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라, 우리는 싸움을 끝내리라.”(엘마서 44:10)

그리고 나는 경전 이야기에 나오는 나의 영웅에게서 배운 원리로 무장하고 전략을 세운 뒤 확신을 느끼며 교실로 갔다. 마침 나는 모로나이 장군 모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은 학년 내내 셔츠 주머니 안에 그 모형을 넣고 다니며 모로나이 장군이 가르쳐 준, 중학생들을 관리하는 법을 떠올리곤 했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자 그들의 행동 양식은 더 나아졌으며, 과제도 해 왔고, 우리 사이도 더 좋아졌다. 학년을 마칠 무렵,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과 경전의 권능으로 나는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

벤 플로이드, 미국 워싱턴 주

에머를 위한 금식과 기도

세실 노령

딸아이가 창문에서 떨어지자, 염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멋진 휴가를 보내고 이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나는 두 아이, 그러니까 네 살배기 마르쿠스와 세 살배기 에머가 우리가 사는 4층 아파트의 위층 침실에서 놀도록 잠시 내버려 두었다. 덴마크 창문은 셔터처럼 열린다. 창문은 보통 잠겨 있지만,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환기가 되도록 휴가 기간에 살짝 열어 두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불현듯 무언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거실로 뛰어들어가는데 마르쿠스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가득 차 비명을 지르면서, 에머가 창문 밖으로, 그러니까 창문에서 12미터 아래 시멘트로 된 인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1층까지 계단을 달려 내려가며, 에머의 이름을 큰 소리로 계속 불러댔다. 마치 죽은 것처럼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는 내 어린 딸이 보였다.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최악의 상황이 결국 내 앞에 벌어진 것이었다. 나를 따라 밖으로 나온 남편은 딸아이를 팔에 안고 곧바로 신권 축복을 주었다.

구급차가 금방 도착했고, 구급 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마르쿠스와 나는 기도를 했다. 곧 우리는 모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집중 치료 병동에 있는 동안 다른 가족들도 금방 도착했고 가족들은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에머의 상태가 어떤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과 나는 병원에 남기로 했고, 마르쿠스는 사촌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영겁과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 마침내 의사 한 명이 들어와서 사고에 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보통 내상을 입게 되어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의사들이 말했다. 에머는 골반이 부러지고 뇌진탕에 걸렸지만, 찰과상은 미미한 정도였다. 의사는 밑에서 천사가 우리 딸을 받아 주었던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기는 했지만, 에머는 머리에 입은 충격으로 인해 아직도 혼수상태에 있었다. 남편은 절친한 친구 두 명과 다시 에머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축복을 받으며 에머는 영구적인 문제 없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약속과 이 사고는 그녀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신권 권능에 크나큰 감사를 느꼈다. 밤을 새우며 드린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응답 되었다.

에머는 나흘 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나흘 동안, 친구들, 교회 회원, 또 그 외 다른 분들이 에머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셨다. 충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감싸 안아 주고 있음을 느꼈고, 그 기도로 인해 우리 가족과 나는 강화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위안으로 채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에머가 깨어나기 하루 전날 금식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에머가 깨어난 것이 금식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믿는다. 그때부터 에머는 빠르게 회복했다. 닷새 후 에머는 사고가 난 후 처음으로 말을 했고, 9일 후 퇴원했다. 에머는 휠체어에서 5주를 보낸 후 물리 치료를 시작했다.

추락 사고가 난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 나는 에머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러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력감이 나를 엄습했다. 에머를 계속 돌봐야 하는데 나 자신부터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날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집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한 시간가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기적과 같은 구주의 속죄 권능이 나를 압도해 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서 거두어졌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기도 후 사라진 것이다. 에머는 계속 휠체어 생활을 했고, 나는 정기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었다.

1년 후, 에머는 여느 네 살배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뛰고, 웃고, 이야기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개개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기도, 금식, 신권 축복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

글쓴이는 덴마크 수도권에 산다.



우리는 시련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워 하거나 영적으로 위축되십니까?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자신의 처지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 곧 자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올리십니까?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의 고통이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축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회장단, “난 하나님의 자녀”,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27쪽.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만은 이들이 여러분을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역자 주)라 부릅니다. 연구자들이 여러분을 ‘밀레니얼 세대’라 부르면서 여러분에 관해 연구해 밝혀 낸 것,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생각과 성향, 강점과 약점 등을 설명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밀레니얼 세대란 말을 쓰는 방식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전문가들의 말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여쭙 볼 때, 저는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여러분에 관해 받은 영적인 느낌을

생각할 때,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는 사실 여러분에게 딱 들어맞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용어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단어입니다.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란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웠으며 지상에 사는 동안 용기가 필요한 여러 일을 하겠다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용기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던 이들을 뜻합니다.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란 하나님이 그토록 신뢰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경륜의 시기에 지상에 보내신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복천년 통치를 준비하도록 세상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임하신 “선택된 세대”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1.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배우십시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딸입니다.
-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지상에서 이 후기의 후반부에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준비될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그 가르침은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제십일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의 사방에서 택함받은 이들을 그분의 포도원에 불러들이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는 마지막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3:3~6 참조.) 여러분은 이 집합에 참여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대단한 영향력을 제 두 눈으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의 일부입니다!(갈라디아서 3:26~29 참조)

몇 달 전, 아내 웬디와 저는 떠나면 시베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준비일에 저희는 이르쿠츠크에서 선교부 회장인 그레고리 에스 브린턴 회장님과 부인인 샬리 자매님, 그리고 그분들의 아들인, 러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귀환 선교사 샘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이칼 호수에 갔고 호숫가에 있는 시장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차로 돌아와 보니 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샘은 발렌티나라는 중년 여성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녀는 조금 흥분한 채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이 청년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친절해요! 그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발렌티나는

밝고 환한 빛으로 가득한 샘의 얼굴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샘은 발렌티나에게 부모님을 소개하고, 구주에 관한 소책자를 건넸으며, 선교사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중에 물몬경을 가져갔을 때 발렌티나는 그 책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몇몇 여성 동료들도 발렌티나가 받은 새로운 책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샘이 보여 준 분명한 빛 때문에 발렌티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과 같은 참된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실한 제자이며 본능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과 다른 이들이 구주의 복천년 통치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일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제 첫 번째 제안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직접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 또한 이곳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쭙 보십시오. 진정한 의도로 묻는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 영은 인생을 바꿀 진리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런 느낌들을 기록해서 자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2.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과 성약을 맺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이 후기의 후반부에 살고 있으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혹독한 시련은 결코 아브라함에서 그친 것이 아님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교리와 성약 101:4~5 참조)

저는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이는 것을 하도록 부탁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고 1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께서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를 모은 일에 참여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대단한 영향력을 제 두 눈으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서거하셨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이 교회 회장이 되신 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처음 모인 자리에서 벤슨 회장은 십이사도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임무 중 하나는 이러했습니다. “넬슨 장로님! 복음을 전파하도록 동유럽 국가들의 문을 여십시오!”

때는 1985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냉랭했던 소위 냉전 시대였던 당시, 베를린 시는 말 그대로 장벽으로 두 동강이 나 있었고, 모든 동유럽 국가는 공산주의라는 억압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종교적 예배는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한 기간의 대부분을 심장을 열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하며 보냈지만, 그렇다고 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나라의 문을 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만한 경험을 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제게 임무를 주셨기에 저는 지극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애물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개 어떤 나라에 도착할 때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정부 관료의 이름을 찾을 수 있더라도 막판에 모임이 무산되거나 미뤄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틀간 약속이 연기되었는데, 그때 암시장 환전과 다른 불법적 행동을 비롯해 수많은 유혹이 의도되더라도 한 양, 제 앞을 가로막고 저를 시험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당장 출국하라는 요구를 받은 채로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니파이후서 27:20~21 참조) 저는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가장 용기 있는 노력을 쏟고, 가장 열렬하게 기도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일부 국가들에서 교회는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인가되었습니다. 1992년에 저는 벤슨 회장님께 이제 교회가 동유럽 모든 나라에 세워졌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지하실 수 있는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여러분도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함으로써,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받을 때,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순수한 교리에 기반을 둔 여러분은 신앙과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전진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3:17 참조)

완전히 낙담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가 되는 것은 갈수록 인기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여러분이 친구라고 여기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지속적인 평화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점점 더 온전하게 성약을 지키고, 오늘날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할 때,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도록 힘과 지혜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3. 하늘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의문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힘쓰는 것은 우리의 지상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영감받은 질문들을 할 때 가장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중 일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일부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왜 하는지 의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확실히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성신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질문에 언제나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대답을 받기에 합당해지고 또 실제로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거룩한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기숙사, 집 혹은 방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어두운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열쇠입니다. 무엇을 그만두고, 또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없애 버려야 영이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런 후 그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혼란스런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무엇이 참되고 그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1:13 참조)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길을

잃었거나 영혼에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봉사를 하면 마음이 열려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많은 시간을 영이 임재하는 곳에서 보내십시오. 그 말은 영을 동반하고자 애쓰는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는 말이며, 무릎 꿇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성전을 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또 신앙으로 다가가 그분의 선지자가 무엇을 선언하든 여러분이 그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후하게 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더 유용하고 의미 있게 만드시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성임받은 열다섯 분을 지지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더 악화되는 듯 보일 때, 이 열다섯 사람은 그 문제와 씨름하며 다양한 조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온갖 가능한 결과를 예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제가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 이 형제님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상의한 후,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문제에 대해 추가로 영감을 받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이 제게는 다반사입니다. 제 동료 형제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또 다 함께 이해하고 느끼도록 함께 협의하고 나눕니다. 그런 후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시어 그분의 뜻을 공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적 과정에 따라 2012년 선교사 최소 연령 변경, 또한 최근 일부 국가의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항하는 교회 지침서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모든 자녀가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바람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일어난 법한 시나리오를 무수히 바꾸기도 하고 합쳐도 보며 숙고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여러 번 만났고 더 많은 지침과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게 영감으로 당신의 뜻과 생각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성스러운 순간에 영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몬슨 회장님에게 계시로 주어진 내용을 사도로서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계시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특권 또한 마찬가지로 성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십이사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러하듯,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최대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구하고 명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씨름하라고 명하셨듯이,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도 이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¹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곳에 있는지, 또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니파이후서 32:3)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4.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인 1979년에 저는 지역 대표 세미나에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김볼 회장님은 중국처럼 당시 교회에 문을 열지 않은 나라들의 문을 개방하는 것에 관해 영감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우리의 전문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참석자 전원에게 중국어를 공부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김볼 회장님의 과제가

선지자로서 주시는 명령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아내 덴셀에게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동의했고 우리는 도움을 줄 개인 교사를 구했습니다. 물론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듬해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련의 사건들 이후, 심장 절개술을 가르치는 객원 교수로서 중국으로 와 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일을 할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85년은 제가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지 1년째 되던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국에 와서 유명 경극 배우에게 심장 절개 수술을 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국가적 영웅으로 중국 전역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임 성직자로 일하는 책임이 있기에 갈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의사들은 세계 빨리 와서 수술로 그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원희 회장님과 제일회장단과 의논했고, 그분들은 중국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가 수술을 맡아야 한다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1985년 3월 4일 중국 지난에서 했던 수술은 제 마지막 심장 절개 수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2015년 10월로 시간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 웬디와 저는 지난해 있는 산둥 의대를 다시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오랜 친구'로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35년 전에 가르쳤던 의사들과 재회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백미는 그 유명한 경극 배우의 아들과 손자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모두 제가 중국어를 배우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귀담아 들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앓을 내다봅니다. 그분들은 대적이 우리 앞길에 놓아두었거나 앞으로 놓아둘 끔찍한 위험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듣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위대한 가능성과 특권들을 내다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저는 직접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능을 가진 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문이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고], … 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훌어버리고 [여러분의]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1:6)²

이 시대의 선지자가 하는 모든 선언이 항상 이해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또 신앙으로 다가가 그분의 선지자가 무엇을 선언하든 여러분이 그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전 41년경, 많은 니파이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결사 또한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교활한 우두머리 다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만이 만연해지면서 많은 니파이인이 “거룩한 것을 조롱하며,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했습니다.”(힐라맨서 4:12)

이런 똑같은 위험이 현재 우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사탄의 종들”(교리와 성약 10:5)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힐라맨서 12:23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임하신 “선택된 세대”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베드로전서 2:9 참조) ■

2016년 1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말씀,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되십시오” 에서 발췌함. 전문은 broadcast.lds.org에서 볼 수 있다.

주
1. 1847년 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지 거의 3년 후, 그는 브리검 영 회장에게 나타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주님의 영을 지닌다면 그 영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주의하고 그 음성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14], 98쪽에서 인용)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84-85쪽.

중간 불의

기적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한 청남이 혼자 집에 있는데 점점 배가 고파 온다고 생각해 보자.(청남은 항상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 이 청남이 혼자서는 처음으로 그릴에 굽는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가정해 본다.¹ 이 청남의 부모님은 그릴에 굽는 치즈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고, 청남도 부모님이 샌드위치를 만드실 때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청남이 빵, 치즈, 빵 곁에 바를 버터 조금(똑똑한 청남이니까, 빵 안쪽에 바를 마요네즈도 약간) 등 재료를 제대로 다 준비했다고 가정한다. 그다음에 이 청남은 프라이팬을 꺼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전용 그릴 팬이나 그 외 다른 주방 기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제 청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참 무지한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 법한 (또는 잠시 정신이 나갔을 때나 생각할 만한) 것이긴 하다. “가스 불을 세게 하면 샌드위치가 더 빨리 될 거야.”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어쩌면 상상할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그는 완벽하게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과 먹기 좋게 녹은 부드러운 치즈를 먹게 될까? 둘 다 아니다. 아마도, 그는 생긴 것도, 느낌도, (아마도 맛도) 화산암 같은 빵과, 애기하다 만 이야기만큼이나 별 볼 일 없는, 녹다가 만 치즈를 먹게 될 것이다.

보다시피 이 청남의 문제는 무지함(용납될 수 있는 부분)과 조급함(이해는 되지만 용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만일 그가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더욱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은 무지함을 탓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조급함 때문에 생긴 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치즈 샌드위치를 제대로 굽기 위해서는 중간 불의 기적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용을 지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가스레인지를 중간 불로 두면 음식 표면을 태우지 않고도 음식을 충분히 익힐 수 있으므로, 그릴 치즈 샌드위치뿐

아니라 다른 음식 요리에도 터할 나위 없이 좋다. 유일한 단점은 시간과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교리와 성약 67:13) 그분은 이 구절에서 완벽한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의 으뜸 되는 모범이시다.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는 말에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너머 장기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 자기 수양, 신앙, 순종, 꾸준하고도 일관적인 노력, 오래 참음, 사랑에서 기인하는 보상, 다시 말해, 인내의 결과로 받게 되는 더 큰 보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내는 기다림을 내포하며, 이는 지루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렇게 가르쳤다.

주
1. 눈치챘겠지만, 이 청남은 미국인이다. 난생 처음 달걀부침이나 크레페,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 스웨덴식

미트볼, 팬케이크, 토르티야나 밥을 짓고 있는 다른 나라 청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기본 개념은 똑같은 것이다.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8쪽.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즉 노력하고, 희망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어려움을 용기로 감내하며, 우리의 마음속 바람이 지연될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²

인내란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프라이팬에 올려 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를 굽는 과정을 지켜보고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 주는

것이다.

인내란 학교나 세미나나 교회에 가서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다.

인내란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고 해서 간증이 주어지길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몬경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물몬경의

권고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인내란 친구들이 여러분의 종교를 조롱할 때 그저 가만히 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내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빨리 먹고 싶은가? 아니면 제대로 요리된 음식을 먹고 싶은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앨마서 32:41] 가꿉니다. ...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굳게 서[서]’[앨마서 45:17]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지니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니파이후서 31:20]”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3쪽.

동영상 시청하기

lds.org/go/101656을 방문하여 **인내심과 마시멜로에 관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이야기를** 시청해 본다.

불을 줄이십시오

인내심과 절제력, 또는 자제력은 모두 “성령의 열매”의 일부분이다.(갈라디아서 5:22~23 참조) 물론, (매우 센 불이 필요한 요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시 행동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긴급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더 큰 인내심과 자제력을 향해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는 영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중간 불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가운데는 덜 익은 채 숯처럼 검게 타 버린 햄버거 패티가 아닌 골고루 잘 익은 햄버거 패티를, 까맣게 타지 않고 잘 구워진 헤시 브라운 감자를, 그리고 밑은 타고 위는 설익은 쌀이 아닌 부드러운 밥을 선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 질 때”[야고보서 1:4] 여러분은 힘써 앞으로 나아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성령의 영향력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영생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조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그릴 치즈 샌드위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원한다면 다른 음식을 생각해 보든.) 조금하게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너무 자주 조금한 마음에 굴복하게 되어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다시 노력할 수 있다.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꼭 한 개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인내를 통해 가능해지는 온전함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일요일에 깊이 생각해 볼 것들

- 여러분은 어떤 시련 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금해지는가?
-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더욱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경전 안내서에 나온 인내에 관한 경전 구절을 공부한다.
- 더욱 인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목표로 세우기 위해 가족과 함께 토론하거나 교회에서 토론할 수 있다.



재건된 여러분을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행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이터 에프 우르토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부작,
2016년 4월 연차 대회

꿀하지 않고 힘 계속해 나갈

제시카 터너가
린 크랜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나의 열여섯 번째 생일을 한 달가량 남겨 두고, 우리 가족은 교회 유적지를 방문하려고 미국을 횡단하는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아주 오랜 시간 차 속에 있어야 했지만 난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 가족은 늘 함께 있으면 즐거웠으니까 말이다. 네브래스카 주 윈터쿼터스를 방문한 다음 날 차를 탄 기억이 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담요를 덮고 편하게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깜빡 잠이 들었다.

그다음 내가 기억하는 것은 건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나는 우리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육교 아래 시멘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내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다고 설명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수술 얼마 후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아빠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내 침대에 앉으시더니 손을 잡아주셨다. 어떤 일인지 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애야” 아빠가 말씀하셨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병원이에요.”라고 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 들었니?”

나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빠는 엄마만 빼고 다들 무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곧바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 조금 놀란 다음, 어떤 일인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다 괜찮을 거라는 감미로운 느낌으로 평온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고 이틀 전에 보았던 교회 유적지인 와이오밍 주 마틴 코브가 떠올랐다. 많은 개척자들이 그곳에서 굶주림으로, 또 눈과 한파로 사망했다. 무덤을 덮고 있는 돌무더기를 보았던 기억, 살아남은 개척자들이 손수레를 끌고 계속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큰 신앙을 발휘했을지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이야기는 내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나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개척자들이 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음을 기억했고, 나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생들을 위해 나

부서진 다리,
부서진 마음, 나는 치유가
필요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소망이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초반의 그 평온한 느낌은 그 이후로 한 주 반 동안 더 내 곁에 머물렀다. 독립기념일에 병원 창문으로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엄마는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오시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내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내 결혼식에도 안 계실 것이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다리 통증은 끔찍했고 식욕도 없었다. 멍하니 TV를 보고, 주로 잠만 잤다. 그렇다고 많이 울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내 걱정을 했다.

마침내 오리건 주에 있는 우리가 살던 빈집으로 돌아오자, 그때부터 나는 훨씬 더 자주 울게 되었다. 갑자기 엄마의 책임 중 일부를 내가 맡아야 했고, 동생들은 종종 나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다. 난 동생들을 위해서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다. 다들 우리 가족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몰랐던 애들도



마음을 구주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그의 길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구주께로 돌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그분의 어깨에 메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리야호나*, 2016년 5월호, 104쪽.

선생님들이 내가 자동차 사고를 겪은 그 여자애라고 소개해 주었기에 다 알게 되었다.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나 아빠가 재혼하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새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잘해 주실 거고 우리도 새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암흑 속에만 갇혀 있던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치유되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신앙을 강화해 주는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시간씩 벽장 속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일기를 썼다. 벽장 속에 혼자 있을 때는 동생들을 위해 강해지지 않아도 되었다. 울고 싶은 만큼 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대로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 주셨음을 알고 있다. 친절하신 자비를 여러 차례 느꼈기 때문이다. 그 벽장 속은 나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밀어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로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힘든 시기를 인내로 견디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돕는 더 큰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로 **힘겨운** 날도 있었다.

아빠의 재혼 이후, 나는 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싶었고 정말로 새엄마께 불편한 마음을 품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온 한 활동은 2주 동안 가족 구성원과 나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가정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그렇게 해 보려고 마음먹고 새엄마를 도와 드리기로 했다.

아빠와 새엄마의 재혼으로 양쪽 가족이 함께 살게 되어 설거지 양이 많았다. 그래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다음 2주간 새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새엄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당시 상황이 꼭 기쁜 것은 아니었지만 인내할 수 있음을 알았다. 새엄마를 도와드리는 것에 중점을 둬으로써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영이 나와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왜 우리 가족에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힘든 날도 분명 있다. 하지만 개척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며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갈 힘을 받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법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과 영모두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심으로써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요한복음 8:29)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여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모사이야서 15:7)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역이 그와 같은 명확성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마음을 동요시키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둘 수 있으며,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7:20~23 참조) 이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삶의 모든 것을 들어 낸 뒤, 구주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우선 순위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일들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즉, 자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과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 등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일에서 일단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교육, 가족으로서의 책임, 직업 및 진로와 같이 가치 있는 일들과 다른 책임들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단순히 좋은 것들에 의해 삶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덜 가치 있는 일들은 우선 순위에서 빠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힘든 일을 겪었고, 이제 저의 집에는 신권 소유자가 없습니다. 시련 때문에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경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매일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저는, 비록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제 삶이 흔들리게 되더라도 제 가치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낮이든 밤이든 언제라도 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헤일리 디, 17세, 미국 아이다호 주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자랄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신성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32:9 참조) ■

2009년 1월 27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로즈메리 새커리

나는 어렸을 때 부엌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빵과 쿠키, 파이를 구우셨다. 시간이 흘러, 나는 요리법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 나온 지침을 따라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직접 시도함으로써 복음을 배우고 간증을 키운다. 리하이가 가족들에게 생명나무의 꿈에 관해 이야기하자, 니파이는 자신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니파이전서 10:17) 원한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니파이는 아버지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배우고 싶었다.

복음 학습을 위한 요리법에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다. 다음 네 가지 제언을 활용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복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

1. 배우기 위해 준비한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한두 개의 질문을 써 보고 답을 찾아본다. 여러분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신이 참됨을 간증해 줄 것이다.(모로나이서 10:5 참조)

교회에 가기 전에 공과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읽어 봄으로써 복음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킨다.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는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찾을 수 있다.

2. 학습에 참여한다.

-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얼마나 많은 양을 읽는지, 혹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는지는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어떤 문장은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본다. 가령, 경륜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경전 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읽고 있는 부분에 관해 질문한다.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리하이가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날 당시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왜 리하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 어떤 복음 가르침이든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하고 답해 본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왜 중요했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되풀이되는 양상과 연관성을 찾는다. 예를 들어, 니파이가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되풀이되는 양상은 무엇인가? 니파이의 가족이 광야를 여행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여행하는 과정과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학습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해 주는 네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자.

MORONI 10:3-17

...os haya hablado unas palabras por vía de exhortación. He aquí, quisiera exhortaros, cuando leáis estas cosas, Dios juzga prudente que las recordéis cuán misericordioso ha sido el Señor con los hijos de los hombres, desde la creación de Adán hasta el tiempo que recibáis estas cosas, y meditéis en vuestros corazones.

de los hombres, lo mismo hoy, mañana, y para siempre. 8 Y además os exhorto, hermanos míos, a que no neguéis la palabra de Dios, porque son muchos, y vienen del mismo Dios. Y hay diversas maneras de administrar estos dones, pero es el mismo Dios que obra todas las cosas en todo; y se dan a los hombres por las manifestaciones del Espíritu de Dios para beneficiarlos.

9 Porque he aquí, yo uno le es dado por el Espíritu de Dios enseñar la palabra de sabiduría, 10 y a otro, enseñar la palabra de conocimiento por el mismo Espíritu; 11 y a otro, enseñar...

MORONI 10:18-29

de acuerdo con su voluntad. Quisiera exhortaros, mis hermanos, a que tengáis fe, que toda buena dádiva sea de Cristo.

Quisiera exhortaros, mis hermanos, a que recordéis que el mismo ayer, hoy y siempre, y que todos los días de que he hablado, los dones espirituales, jamás cesarán permancezca el don por la incredulidad de los hombres. 20 Por lo tanto, debe haber fe; y si no hay fe, también debe haber esperanza; 21 y si no hay esperanza, no puede haber amor.

vosotros el poder y los dones de Dios, será por causa de la incredulidad.

25 Y ¡ay de los hijos de los hombres si tal fuere el caso; porque no habrá entre vosotros quien haga lo bueno, no, ni uno solo! Porque si hubiere entre vosotros quien hiciere lo bueno, será por el poder y los dones de Dios.

26 Y ¡ay de aquellos que hagan cesar estas cosas y mueran, porque mueren en sus pecados y no pueden ser salvos en el reino de Dios! Y lo digo de acuerdo con las palabras que he hablado.



- 일지에 느낌과 생각을 기록한다. “소중한 느낌들을 기록한다면, 그러한 느낌이 더욱 자주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얻는 지식은 평생토록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리처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 14쪽) 특히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록한다.
- 그림으로 그린다. 배운 것을 기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한번은 가정의 밤을 하러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할머니가 신앙과 기도 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친구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린 자녀들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주고 증조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질문을 하기도 했다.

3. 매일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대로 생활한다.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모사이야서 12:27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매일 경전을 공부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단 몇 분일지라도 말입니다.”(“When Shall These Things Be?”, *Ensign*, Dec. 1996, 60) 규칙적으로 공부하면 배우는 일은 더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나는 몰몬경에 있는 이사야 장들을 (건너뛰는 대신) 실제로 읽었을 때, 의미가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을 공부할 때는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우리가 진리에 따라 행할 때 성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며 우리의 간증은 발전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개종을 이루게 된다.

4. 배운 것을 나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로 복음의 원리를 전하면 그 원리를 기억하고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간증이 강화된다. 가정의 밤은 배운 것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되곤 한다. 그 밖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나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한 네 단계를 따르고 구주를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니파이전서 10:19)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여러분과 저는 고도의 학습 보조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 성신의 동반, 거룩한 경전, 그리고 적극적인 탐구 정신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생수의 보고”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07년 2월 4일), 3, si.lds.org.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표준을 강화하려면 나와 표준이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복음대로 생활할 때 궁극적으로 표준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부터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까지 말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높은 표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2011], 16쪽) 이런 부류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표준을 지키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과 비슷한 표준을 지닌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두 교회 회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구주와 같이 사랑과 친절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표준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디모데전서 4:12)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그들은 높은 표준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표준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친구

저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지키는 표준을 존중해 줄 친구를 찾지 못할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반 아이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몰몬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것에 관해 질문했고 저는 친구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한 권을 주었습니다. 친구는 그날부터 제 앞에서 불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표준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칸델라 엠, 13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거나 우리를 나쁜 선택으로 이끌려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유혹에 맞서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2011], 16) 우리의 표준을 기꺼이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준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 줄 수도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빈 더블유, 16세, 미국 애리조나 주

표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표준이 다른 친구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표준을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새 학교로 전학갔을 때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동안 제 표준은 거의 잊고 있었지요. 표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표준을 지지하고 함께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알아요. 마침내 그런 친구들을 찾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제 표준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로건 제이, 15세, 미국 유타 주



높은 표준을 유지하세요.

표준이 다른 친구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표준을 강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친구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믿음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높은 표준을 유지하는 데 힘이 되고, 옳은 일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런 에스, 14세, 미국 오리건 주



좋은 친구는 축복이에요
친구가 여러분과 표준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표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으면 저를 존중해 주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데 항상 도움이 돼요. 이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표준이 같은 사람들과 지낸 덕분에 제가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음을 저는 알아요.

나이르 엠, 19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쇠막대를 붙잡으세요

훌륭한 표준을 지닌 친구와 사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의롭게 살겠다는 동기를 줄 친구들과 지내기를 바라죠. 크고 넓은 건물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으세요. 의롭지 않은 것을 가까이하면 유혹에 빠져들게 돼요. 복음대로 살도록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애니 피, 13세, 미국 유타 주



친구를 찾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새로운 주로 이사한 뒤로 복음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찾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위안을 느꼈고 몇 달 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몇 명 사귀었어요. 저를 지지해 주는 그 친구들은 제게 의지가 되고, 그 친구들 덕분에 복음에 대한 제 사랑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친구들은 소중하며, 친구들 덕분에 복음대로 사는



좋은 친구가 주는 영향력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구들과 공감하는 가치관을 함께 나눈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이 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킨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53쪽.

것이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사라 피, 16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다음 질문

“기도와 경전 공부 외에 간증을 강화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6년 11월 1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줄리아 벤투라
실화에 근거함.

“나에겐 가족이 있네 소중한 내
가족”(어린이 노래책, 98쪽)

“**도** 구를 챙기자. 낚시할 시간이다!”
도 아빠가 말했어요.

헤이든은 활짝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호수 전체에
헤이든의 가족뿐이었어요!

헤이든은 아빠를 따라 차 뒤로
걸어가서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지만, 끄떡없었죠.
아빠와 함께 낚시하기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두 배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덜거덕거리며 낚시대를
꺼내셨어요. “댄이 잠든 것 같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댄을 깨워
주겠니?”

헤이든은 최대한 낮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음,
물론이죠.”

사실 어린 동생 댄이 같이 왔다는
사실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댄은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굴었어요. 물고기들이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가 버릴 거예요!

헤이든은 열려 있는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댄, 일어날 시간이야.”
하지만 댄은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죠.

헤이든은 순간 멈칫했어요. 잘하면
댄이 낚시 여행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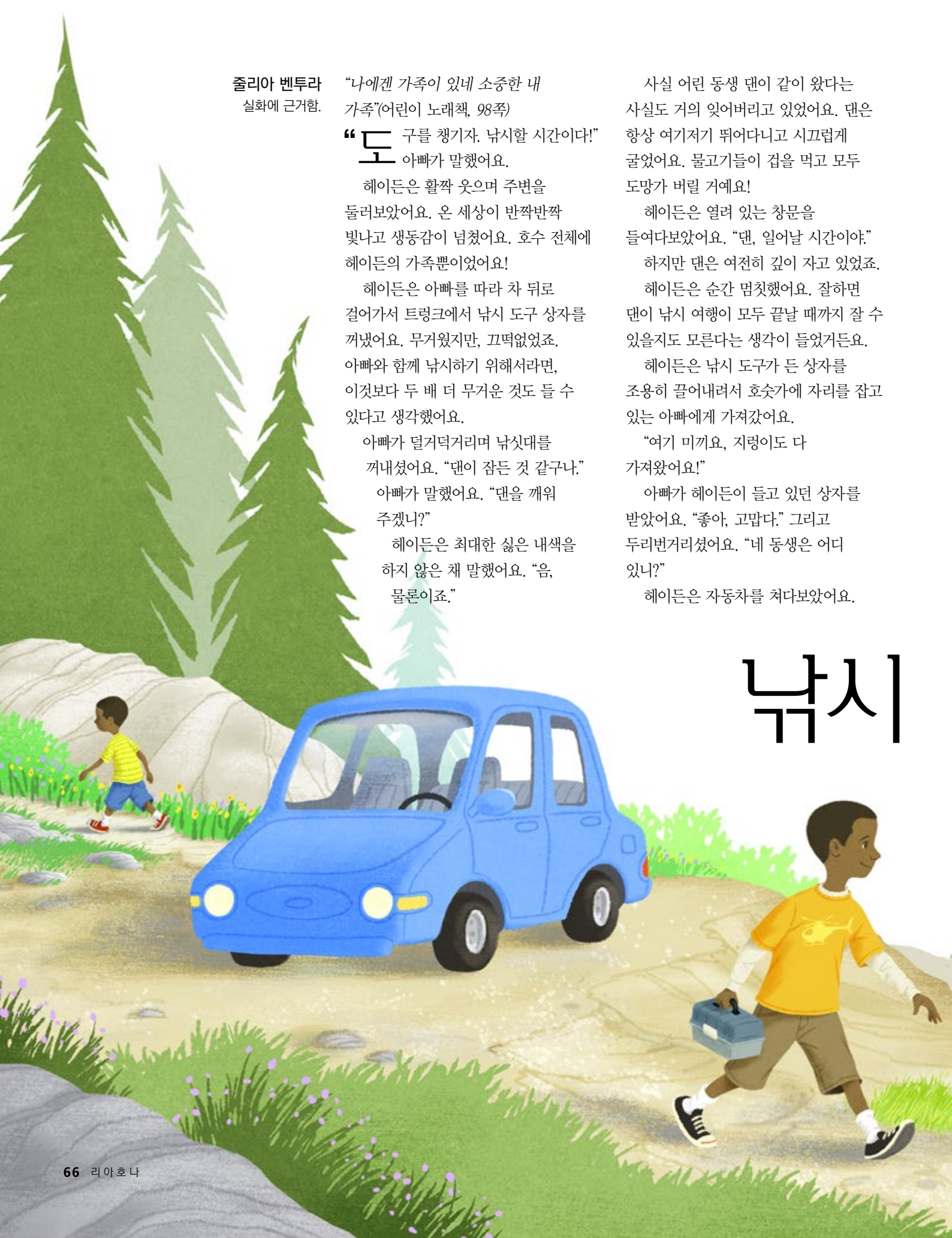
헤이든은 낚시 도구가 든 상자를
조용히 끌어내려서 호숫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빠에게 가져갔어요.

“여기 미끼요, 지렁이도 다
가져왔어요!”

아빠가 헤이든이 들고 있던 상자를
받았어요. “좋아, 고맙다.” 그리고
두리번거리셨어요. “네 동생은 어디
있니?”

헤이든은 자동차를 쳐다보았어요.

낚시



낮선 곳에서 혼자 깨어나면 댄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헤이든은 동생이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댄은 겁을 심하게 먹을지도 몰라요. 아직 다섯 살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빠, 잠시만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헤이든이 자동차로 가서 들여다보니, 댄이 이미 없어졌지 뭐예요!

헤이든은 더는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벌레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 같았어요.

“댄이 여기 없어요!” 헤이든이 소리쳤어요.

아빠는 급하게 뛰어와서 재빨리 자동차 안을 살피보았어요.

“우리를 찾으러 간 것 같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조금 전까지 있었으니까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헤이든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헤이든은 남동생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댄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댄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헤이든이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빠는 헤이든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만약에 네가 댄이었다면 어땠겠니? 어디로 갔을 것 같아?”

헤이든은 자동차의 반대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댄은 아마 호숫가에 있는 아빠와 헤이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헤이든은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가리켰어요. “저라면 저쪽으로 갔을 거예요.” 헤이든이 말했어요.

아빠와 헤이든은 서둘러 산책로를 따라갔어요.

매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헤이든은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몇 걸음 더 가서 구부러진 길을 지나가니 앞서가고 있는 댄이 보였어요.

“댄!” 헤이든이 소리쳤어요.

댄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어요. “형, 아빠랑 모두 어디 갔었어?”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헤이든은 뛰어가서 댄을 꼭 껴안았어요.

“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헤이든이 말했어요. 헤이든은 마음속으로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댄은 그저 활짝 웃고 있었죠. “물고기는 어땠어?”

“이리 와, 내가 보여 줄게” 헤이든이 말했어요. 헤이든은 호숫가로 얼른 뛰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누가 물고기를 먼저 잡나 시합하자. 내가 낚싯바늘에 미끼 다는 것을 도와줄게.” ■
글쓴이는 미국 조지아 주에 산다.

하러 가기

헤이든은 낚시하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댄이 따라오지 않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을 성전처럼 평화롭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집을 깨끗하게 하고 잘
정돈해요.



집에 예수님이나 성전의 사진을 걸어
놓아요.



가족들이 함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에
경전을 두어요.

우리들 이야기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성전까지는 아주 멀어요. 거의 열네 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성전 근처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저는 빨리 열두 살이 되어 저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나 성전 보고 싶어”예요. 성전에서 결혼해서 영원한 가족을 갖고 싶어요. 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줄리아 큐, 11세(사진 찍을 당시), 브라질, 고이아스



앨런 이, 10세(그림 그릴 당시),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저와 제 여동생은 우리 와드 성전 방문일마다 멕시코 유카탄에 있는 메리다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성전에 온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아요. 저는 언젠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사 에스, 6세(그림 그릴 당시), 멕시코, 유카탄



우리는 성전이 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계명을 지키면, 제 부모님처럼 저도 언젠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인봉을 받아서 저의 영원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매놀리타 지, 8세(그림 그릴 당시),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친구들, 안녕!

제 이름은 스토리예요. 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살아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답니다. 저는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바느질하기를 좋아하고, 아빠와 함께 별 보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 가족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어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

질 해킹
교회 잡지

미시를 위해 기도하기

사나운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제 친구의 고양이가 미시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살살이 뒤졌지만, 미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기도를 해 보자고 말했어요. 제 친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서,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무릎 꿇고 각각 한 명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미시를 찾았다고 했어요! 저는 제 친구에게 복음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로 배우기
 제 여동생 새라이아와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녀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즐겁게
 지내서 좋아요.

만들기와 재미있는 활동
 새라이아와 저는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소풍도 갔죠.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이웃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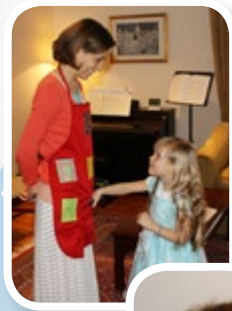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
 ("기사 제출"을 클릭하세요)로
 보내거나 [liahona@
 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집에서 교회 참석하기

우리 가족이 유일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어요. 성찬식을
 하고, 노래 부르기 시간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하고, 초등회 공과도 했어요.
 저는 노래 부르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칠십인 정원희



제가 자라는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저의 어머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지폐(가장 구김이 적고, 깨끗한)를 골라 우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드리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 옆집에서는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과일이 담장을 넘어 우리 집 쪽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 과일을 따서 어머니에게 가져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며 “그건 우리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담장 안에 있었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 번, “그건 우리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를 데리고 옆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옆집 사람에게 과일을 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부모가 되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나요?

매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복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질문을 또 해 볼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도우미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일지에 적거나 그려 보세요. 부모님이 해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세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분들로부터 정직, 책임감, 자립, 근면과 같은 참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



나도 믿을 수 있어요!

라모나이의 아내는 암몬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한 신앙을 가져서 라모나이의 아내처럼 될 수 있어요!

- 엘마서 19장 2~5절, 8~10절을 읽는다.
 - 몬슨 회장님의 연차 대회 말씀을 시청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가?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



나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리엔톤은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종들 중에서 한 여종을 심하게 때렸어요. 그러자 그 여종은 모로나이 장군에게 가서 모리엔톤이 하려던 일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 여종처럼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엘마서 50장 30~31절을 읽는다.
 -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른에게 얘기한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



야렛과 야렛의 형제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야렛의 형제에게 사람들을 태워 바다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창문이 없는 배를 만들었어요. 야렛의 형제는 어떻게 숨을 쉬고 밖을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공기가 통하도록 배에 구멍을 뚫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빛은 어떻게 하죠?
야렛의 형제는 열여섯 개의
투명한 돌을 만들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그 돌을
만져 그것들이 빛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야렛의 형제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는 것을 보았어요. 돌이
밝게 빛났어요. 야렛의 형제는
신앙이 매우 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센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야렛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야렛의 형제처럼 될 수 있어요.

이터서 2~3장, 6장

음악은 저를 행복하게 해 줘요





고든 비 힝클리
(1910~2008) 회장

주님의 교회에 잇든 신성한 특징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웅대한 계획에 따라
천을 짜고 계십니다.

이 사업의 조직과 지도자들의 부름을 인도하는 신성한 특징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총관리 역원은 모두 각기 다르며 각자는 그 자신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폭넓은 여러 경험과 배경을 통해 그들이 맡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교회의 주요 평의회에서 토론할 사항이 제기되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 흥미로운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의 권능을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경험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도 결코 격렬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게 마음이 누그러지고 잘 조화되어서 의견이 일치되게 됩니다.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라고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8 참조) 이러한 계시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항상 신앙이 새로워짐을 맞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연로한 분들이 교회의 회장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사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젊고 힘이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그 시대의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다. 그의 마음은 새롭고 촉촉이 젖어 있는 진흙과 같아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모양을 빚으시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다.

조셉의 후임자도 비교적 젊었을 때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다.

그러나 이제는 교리의 기초가 제대로 닦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다른 조치를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다.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한

원리를 굳게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도자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이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갖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결코 선지자가 우리의 곁을 떠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다. 그분은 젊은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성역을 행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다. 그분은 감리 대제사로서 성스러운 신권의 모든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계시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젊은이는 행동하고 노인은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크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훌륭하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은 한 분을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다. 그분의 일에 대한 충실성과 이 대업에 있어서의 성실성은 용광로에서 잘 담금질 되었으며, 그분의 신앙은 무르익었습다. 그리고 그분은 수년에 걸쳐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계시된 원리를 굳게 잡는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코다.”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4~9쪽 번역 일부 수정. 구두점 및 대문자 수정.

통찰



계속해 나갈 용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의 길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구주께로 돌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그분의 어깨에 메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4쪽.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대비해 세상이 준비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46쪽



청소년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힘

58쪽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나는 단순한 몇 가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밀어내고 억울한 감정 속에 빠져 생활하는 대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

어린이

어머니의 가르침

72쪽

엄마 아빠께 부모가 되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13290 320